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8월 29일(음력 7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643 호

하안거 끝나도… 식지않는 경전공부 열기

선교연구모임·경전연구회·선문회 등 수행자 모임 활성화

하안거 한철 살림살이도 끝났다. 폭염보다 뜨겁게 정진하던 수좌들도 괴나리봇짐을 싸고 산문을 나섰다. 만행이다.

하지만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해제법어를 통해 "해제는 그냥 해제가 아니다. 멍청하게 다닌다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있는 생채기에 걸려 자빠질 뿐"이라며 고삐를 더욱 죄었다.

하안거 해제 후 결제동안 공부했던 것을 더욱 탁마하기 위한 공부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선교연구모임(운영위원장 법경)은 9월 15일부터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을 초청해 〈능가경〉 강의를 진행한다.

선교연구모임은 불교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1 · 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다. 강의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대상은 출가자의 경우 법랍 15년 이상,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재가자는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교연구모임은 〈능가경〉 강의 후 원효 대사의 〈금강삼매론〉 강의, 고려조 제관 법사의 〈천태사교〉 강의 등을 기획하고 있다.

조계종 출가수행자들의 모임인 경전연구회(회장 지장)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 미타사 내 대승암에서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을 초청해 '수행과 삶이 하나되는 길'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10월 15일부터는 1년 과정으로 하동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을 초청해 〈전등록〉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3시 열린다.

경전연구회는 3년 전 조계종 산하 불교대학 교수사를 양성해 전 종도의 교육화, 조직화, 체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에 2번 이상 전통선원에 입방해 선원장 스님들의 지도아래 정진하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회장 육문)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울진 불영사 내 천축선원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을 초청해 〈서장〉 특강을 연다.

특강은 지난 안거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며 새롭게 발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공간 부족으로 800여명이 넘는 비구니 수좌들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한 사찰당 몇 명씩으로 배분해 총 100명이 수강할 계획이다.

선문회 기획실장 성정 스님은 "비구니 수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차에 이어 2 · 3차 특강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정해년 하안거 해제법어 발표

불기 2551년 정해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27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각 총림에서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법어 4면에〉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법안록〉의 법안문익 선사(885-958, 당나라)가 던진 '배로 왔는가? 걸어왔는가?'라는 비유적인 질문을 통해 '공부 길'을 물은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릴 때 해제기간의 만행이 참으로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정해년 하안거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93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4곳, 비구니선원 34곳)에서 정진대중 총 2221명(비구 1119명, 비구니 933명, 총림 169명)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동우 기자



불교박사 신부님 현직 신부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인도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불교의 뿌리를 연구하고 싶었다"는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박문성 신부(40 · 사진 오른쪽)는 8월 24일 동국대 가을학위 수여식에서 논문 '깨달음의 달의 출현의 해탈관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문포교사 첫 선발 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은 9월 20일 제1회 전문포교사 선발 고시를 실시한다.

응시분야는 △신행지도전문포교사(어린이, 청소년, 청 · 장년 포교분야, 직장직능 및 군경교도소 포교분야, 교육 및 수행 포교분야) △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 포교분야, 출판 · 인터넷 포교분야, 예능 · 스포츠 포교 분야) △사회 · 복지전문포교사(환경, 평화, 인권(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통일 포교분야, 자원봉사 · 복지 및 포교분야, 법률 · 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 9월 10일까지 포교원(02-2011-1916)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또 10월 28일 불기 2551년도 국제포교사 자격고시를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외국어에 능통한 조계종 스님과 고등학교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을 소지한 조계종 신도. 전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고사 및 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응시를 원하는 스님 및 재가불자는 응시원서 등을 첨부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교원(02-2011-1891)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불교계도 재정 투명성 높여야"

교단자정센터, 가톨릭서울교구 재정공개 환영 논평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회계법인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한 것과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문을 발표하고 불교계도 복식회계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8월 22일 논평 발표문을 통해 "불교계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정, 중앙종회 결산감사 모니터링 허용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종단 재정을 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비리로 인한 교구본사의 사법적 처벌이 끊이지 않고, 단위 사찰의 재정 공개나 사찰 운영의 신도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직할 교구의 예결산 공개를 시작으로 교구본사 차원의 재정공개 실현과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종단적으로 복식회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미디어 정책 개발 공청회

불교미디어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9월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김재일 사단법인 보리 이사장은 △미디어 시대와 불교 △종교계 미디어 교육과 활용을 통한 지역포교전략 △불교 미디어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남동우 기자

東大, 교직원 학력 검증

신정아씨의 '가짜 박사 학위'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동국대가 신씨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교직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키로 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회의실에서 제230회 이사회를 열어 총장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교직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키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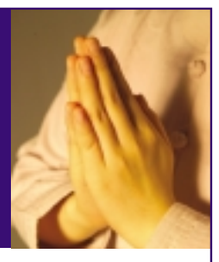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이사회에서 '신정아씨 사건' 처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요식행위로 도장을 찍어 임용 절차를 통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사회에서 큰 틀이 잡힌 만큼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학교 측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I Love Buddha / 동상이몽



용정운(www.zentoon.com)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

"종단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급선무"

중앙분담금 분담률 재조정 필요
고의 미납땐 10% 가산금 부과를

조계종 재정연구위,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재정연구위)의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재정연구위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과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 점검 및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연구위는 "약 150여개 사찰에서 종단 분담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편중이 매우 심하다"며 분담금 책정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분담금 분담률 표가 1995년, 96년 중앙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 분담률의 15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분담률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분담금은 분담률을 세분화해 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법에 명기토록 해야 한다.

직영분담금 분담률 또한 종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분담금보다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직영사찰 지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관람료분담금은 현행 제도대로 존치하되,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처를 분명히 명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단 목적사업으로서 교육특별분담금을 각 사찰에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나 교육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단목적사업분담금은 환경, 통일, 복지, 국제화 등 사업계획 수립을 전제로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내지 분담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해 분담금 부과 대상에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담률은 중앙분담금 분담률 30% 이내에서 사찰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교구목적사업분담금은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종단목적사업 대토기금은 사찰 수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찰과 사설사암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며, 종법에 명기해야 한다. 종단목적사업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령을 폐지하고, 임대수입을 당해 사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토록 한다. 사용 시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서에는 또 "사찰 등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찰 등급 사정을 위해 총무원에 중앙심사위원회를, 교구본사에 교구심사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구본사와 직할사찰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말사는 교구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이다. 말사는 교구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최종적으로 중앙심사위원회의 본심을 거쳐 등급을 확정한다. 또 심사위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 인사들의 참여와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찰이 고의로 분담금 납부기한을 넘길 때 연체기간에 대해 연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미납자를 징계에 회부토록 하고, 주지 재임용 때 결격사유의 하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재정연구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현행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찰(납세의무자)에게 자발적 과세를 유도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종단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든 종도들에게 양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분담금 조정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분과위는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올 9월 주요 사설사암 분담금 조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예 · 결산 1억원 이상 사찰 중 분담금 비율이 낮은 사설사암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장윤 스님 이사 해임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정아씨에 대해 '가짜 박사' 의혹을 제기해 동국대 이사회로부터 지난 5월말 이사해임된 장윤 스님의 해임이 무효라고 법원이 결정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장윤 스님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였던 신씨 의혹 제기의 경우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거나 별다른 방어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즉시 해임결의에 이른 점과 이후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9월 있을 후임 이사 선임에 현재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히 해임결의 효력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제주불자연합측이 시몽 스님측 스님들을 절 밖으로 들어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 소리>

몸싸움으로 번진 관음사 사태

시몽 스님측·제주불자聯 충돌

제주 관음사에서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측과 회주 중원 스님측 제주불자연합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 등 4명은 8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대웅전에 진입했다. 이후 10여명의 스님들도 관음사에 진입했으나 제주불자연합측 200여명이 스님들을 관음사 밖으로 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시몽 스님과 재무스님 2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제주불자연합측 4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이와 관련 시몽 스님측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강제로 절 밖으로 끌려나갔다"며 "경찰에 관련자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불자연합측은 "신도들 몰래 관음사에 진입한 스님들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음사 진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불자연합측은 21일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이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국정토 건설을"

금강사 9월 1일 대법회



소백산 금계리 진령골에 자리 잡은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소백산 금강사가 새로운 수행의 장을 여는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를 9월 1일 오후 1시 봉행한다.

불국정토 건설을 발원한 정봉 스님(법회대회장 · 사진)은 "종교가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서고, 종교 종단 종파를 초월해 바른 사회지도자를 육성하려고 한다"며 "종단 종교 종파를 떠나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받겠다"고 금강사 건립 취지를 밝혔다.

법회 식전행사로 진악예술단이 전통국악과 클래식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한 '프론티어'를 연주한다. 본 행사는 제1부 불국토의 메아리, 제2부 불국토의 향연, 제3부 불국토의 향기로 진행된다. (054)638-6546

고영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바로 잡습니다

본지 642호 5면 '불교문화 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금강산 건봉사 기사 중 '근간에는 수해나 병충해를 입어도 절집인심이 야박하여 도지를 감해 주는 일이 없단다' 표현은 필자의 취재 중 오해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봉사는 흉년이 들면 도지를 감면 혹은 면제해 주고 있으며 사하촌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으로 인해 건봉사에 누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조계종 지관 스님 예방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8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이명박 후보에게 "앞으로 조국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후보로부터 경선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들은 뒤 '진면인(眞勉忍, 진실로 힘써 참는 것)', '인욕바라밀(忍辱婆羅蜜, 육바라밀의 하나로 참음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잘 참았고, 앞으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나라를 위한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지관 스님은 "건강을 잘 챙기라"고 덕담을 건넸다.

예방에는 총무부장 현문, 기획실장 승원,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한나라당 불자회장), 최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대변인 나경원 의원 등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안내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등록일 확정

2008년 2월에 봉행 예정인 조계종 제34기 행자교육원 입교 대상자 입산 기준일 및 교육원 등록 기준일이 확정됐다.

교육원은 "대상자는 9월 20일까지 입산해야 한며, 9월 30일(우편소인 유효)까지 교육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8월 20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말사는 교구본사에 대상자 행자등록신고서와 신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직할사찰은 교육원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자, 기타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등록 가능하다. (02)2011-1803 남동우 기자

포교사단 8재계 수계실천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포교원 정기연수 및 8재계 수계실천 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증명으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계사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거행된다.

1000여명이 참석하며 철야정진, 재가보살계 수계, 모범포교사 시상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공 고 문

대한불교원효종은 종조인 원효성사의 대도를 받들어 삼계유심의 근본진리를 깨닫고, 만법적멸의 금강삼매에 머물러 일도해탈의 보살행원을 닦아서 만선동귀의 지성불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고

본종(대한불교원효종)은 1989년 종헌개정으로 법적전통성 시비로 이종오스님측과 윤규현스님측이 양분화되어 법적분쟁이 시작되어

대법원 2006다 85457 소유권말소등기 준재심판결에의하여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은 신정균스님으로 2007년2월22일 판결로인하여 대한불교원효종의 법적전통성을 인정받아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 신정균스님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신정균스님 이후 윤규현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된후 대법원판결 원인으로 법적전통성이 인정되어 대한불교원효종의 임시종정선임을 2007.6.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비합13)으로부터 김순석(휴원 용일)스님을 임시종정으로 선임받아 서부지방법원 결정에 의하여 2007.8.9 비상임시중앙종회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최하고 성황리에 폐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11.17선고, 2005나79044판결 (대법원 2007.2.22선고, 2006다 85457판결)에의하여

이종오스님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아(1992년 제30회 종회에서 종정불신임결의및 채탈도첩되었고) 임의로 남용희변호사를 임시종정으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종회의원 선거에 관여하거나 종회의 개회및 폐회에 참석하여 선시를 하지 않은 사실(2004제가합 제141호 사실조회답변서)의거 위 종회 당시 이종오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원들이 참석하여 임의로 종회를 개최하여 이종오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고 이종오스님이 송무진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한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1993.3.28 제7대종정 이종오스님 임기만료 이후 이종오스님이 임의로 구성한 사집단에의하여 만들어진 불법단체이고 그 단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인정되지않는 행위임을 공포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의 임시종정 김순석(휴원 용일)스님은 종조원효성사의 화쟁사상에 입각하여 종단을 대통합함에 있어 대한불교원효종의 전 종도들께서는 임시종정권한으로 종헌.종법에 입각하여 종단구성을 하고 있사오니 본종의 승려 신도는 이를 양지하시고 종단 조직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1(2007)년 8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김순석(휴원 용일)
중앙종회의장 이순서(원각)

日 국회의원 "조선왕실의궤 반환 돕겠다"

사고지 방문, 정념 스님 등과 반환 논의
환수위 "일본 지식인과 연대 운동 전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가운데)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오대산 사고지를 둘러보고 있다.

"한국측이 조선왕실의궤 반환 청원을 하면 일본 국회에 접수되도록 노력하겠다."

일본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돕기 위해 방한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8월 21일 원래 소장처인 평창 월정사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오가타 야스오(緖方靖夫) 일본 공산당 부위원장(前 참의원 의원)과 카사이 아키라(笠井亮) 중의원 의원은 이날 오대산 사고지를 방문해 조선왕실의궤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 공동대표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등과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일본 참의회 외교방위위원회 166회 회의에서 일본 외무대신 아소 다로(麻生太郎)에게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아소 외상은 조선왕실의궤가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 소유지만 "지난해 도쿄대가 기증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처럼 개별적인 사례로 인식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카타 야스오 부위원장 지난 7월 17일 환수위와 일본 외무성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면담에서 일본 외무성은 "한 · 일 조약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반환에 응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념 스님은 "먼저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노력하고 있는 두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조선왕실의궤가 산중으로 돌아올 때 더욱 의미가 빛나고 양국 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가타 야스오 부위원장은 "조선왕실의궤 고향에 직접 와 보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조선왕실의궤가 일본 궁내청에 있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역사 ·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가치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네스코 협약을 봐서라도 조선왕실의궤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카사이 아키라 중의원 의원 또한 "한국측이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청구한다면 일본 국회에 접수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방한 경험을 다른 정당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가 일본 궁내청에 있는 것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올 9월부터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연대해 반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 월정사/글 · 사진=남동우 기자

Tip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오대산 사고를 해체하고 궁내청에 기증한 것으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등 72종 86책에 이른다. 환수위는 지난 5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갓바위 부처님 국보 될까?

매년 250만 참배객 찾아…연말 결정



갓바위 부처로 널리 알려져 있는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431호)이 국보가 될 수 있을까?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관봉석조여래좌상의 국보 승격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석불은 조성연대와 조각양식, 보존상태 등에서 다른 국보급 문화재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국보 승격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경산시 와촌면 산44에 위치한 관봉석조여래좌상은 높이 5.3m, 폭 3.8m로, 1965년 9월 보물로 지정됐다. 매년 250만 명의 참배객이 찾는 대표적인 기도처이기도 하다.

국보 승격 여부는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조사를 거쳐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령 기자

도심포교 성공신화 듣는다

9월 12일~11월 22일까지 부산불교회관서

부산불교신도회관건립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욱태)는 9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도심포교 성공신화 릴레이 초청법회'를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 교육관에서 개최한다. 법회는 오후 7시에 열린다.

첫 법회인 9월 12일에는 서울 구룡사 도심포교를 이끌었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이어 10월 12일에는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이 '참다운 행복이란?'을, 10월 18일에는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이 '강남포교의 일번지 포교를 말한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11월 5일에는 정토회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이 '정토행자의 발원과 실천'을, 11월 22일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 수행과 원력'이란 주제로 각각 설법한다.

이욱태 위원장(부산 해동중학교 교법사)은 "도심 포교의 신화를 이끌어온 선각자들에 많은 가르침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법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051)853-8539 하성미 기자

수계법회 등 사업 발표
이주민불교지원단체협

이주민불교지원단체협의회는 8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올해 각 단체의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20여 지원단체가 모여 이주민합동 수계법회 및 문화행사를 연다.

구미 마하붓다센터도 △아시아인의 문화축제(10월) △인도네시아 라마단 축제(11월) △이주노동자 송년의 밤 등을 개최한다. 또한 신특사 부설 이주노동자의 집은 하반기에 목욕서비스(매주 일요일), 의료서비스(매주 수요일), 법무봉사 등을 계속 펼친다.

한꽃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합동법회 △문화예술 현장 답사 △가족 영상 편지 발송 등을 추진한다. 행복한이주민센터도 △한가위축제(9월) △가을소풍(10월) △이주민 송년잔치(12월) 등을 마련한다. 김주일 기자

부산 반야원 간병사 모집

범어사해운대포교원(주지 목종)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감로법을 실천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전해줄 간병사를 모집한다.

9월부터 매월 둘째 주에 개강하는 부산 반야원 간병인 교육과정은 2주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진다.(051)701-5655

하성미 기자

불교방송 이사장에 영담 스님

동표나와 지명 선출

불교방송 새 이사장에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선출됐다.

불교방송은 8월 20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제63차 이사회를 열어 영담 스님을 제6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영담 스님과 종하 스님이 동표가 나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홍승희 임시의장(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영담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지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종하 영담 종범 스님, 구형선 이사 등 네 명의 이사가 재선임됐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에 영담 스님 징계 요청

한국불교기자협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 이하 불기협)가 8월 21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 종회의원 영담 스님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불기협은 공문에서 "영담 스님이 교계언론을 향해 '걸레' 운운한 것은 교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라며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불기협은 이어 "중앙종회법 101조(의원의 징계) 1항 8호(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의거 종회의원 영담 스님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백혈병 환우돕기,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백혈병 환우들의 생명을 위해 골수 기증자들을 찾아 나선다.

생명나눔실천운동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9월 6일 오전 11시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8월 29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이어 조선대와 전남대에서도 각각 9월 13일과 18일에 개최된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조혈모세포 등록자가 적어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하면 혈액을 채취한 뒤 환자와 일치하는 골수인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의 기증의사를 재확인한다. 그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증을 추진한다.(051)853-0429

하성미 기자

조계사, UCC 동영상 공모 10월 7일까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불교계 최초로 UCC 동영상 공모를 실시한다.

동영상 공모전은 △불교 수행, 화합, 나눔 △조계사의 과거와 현재 △조계사 슬로건(서울, 만남, 미래)과 관련된 소재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네이버 카페(cafe.naver.com/jogyesauce)나 다음카페(cafe.daum.net/jogyesa)에서 한다.

동영상은 러닝타임 5분 이내로 1편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편당 용량 2M 이상으로 3편으로 제한된다.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40점, 독창성 및 창의성 30점, 기획 우수성 20점, 향후 활용도 10점 등이다. 대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에게 30만원, 가작 1명에게 5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0월 10일, 시상식은 13일 예정. (02)732-2115 남동우 기자

거사들 위한 불교대학 개강

거사들을 위한 불교대학이 개설된다.

부산 영축선원(주지 반산)은 9월 6일 오후 7시 30분 제1기 '거사 불교대학'을 개강한다.

'거사' 만을 위해 개설된 이번 불교대학은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불교 교리 공부를 실시하며 셋째 주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하는 시간을 열어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넷째 주 목요일은 참선을 통해 배운 내용을 체험하는 시간을 연다.

반산 스님은 "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을 위해 거사 불교대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051)752-0108

하성미 기자

ADHD 자녀 둔 부모교육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이 마련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동을 위한 제1차 부모 교육'을 9월 3일~17일 매주 월요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날마다좋은날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뤄지며, 3일에는 'ADHD 아동 행동의 특징과 치료방법'을, 10일에는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 돌아보기 행동수정 기법 적용 및 활용', 17일에는 '아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차단하기 및 아이의 학업수행 향상시키기'를 주제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강의한다.

ADHD 아동의 부모나 ADHD에 관심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 7만원.(02)733-7277 여수령기자

초일류재무컨설팅 MIRAE ASSET 대한생명보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종합영업 최상선 손전화 011-253-3747

생활불교염불봉사단 창립

생활불교염불봉사회(단장 도안)는 8월 24일 청주 상당구청 세미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염불봉사회는 앞으로 염불수련을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불자 환우들을 위로하고, 임종시 전통 불교의례를 무료로 치러줄 예정이다. 도안 스님은 창립법회 인사말에서 "봉사회 활동은 모두 회원들의 보시금으로 운영되며,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는 병원 방문을, 셋째 주 수요일에는 염불수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더 많은 환우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용 자료 제작 업체 공모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조계종 포교원은 플래시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어린이 포교용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업체를 공모한다.

구성은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3분짜리 플래시애니메이션 12편과 플래시 찬불가 어린이 뮤직비디오 5편.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사업제안서(예산안 포함), 최근 3년간 업무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포트폴리오 등을 첨부해 8월 31일까지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02-2011-1902)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9월 3일 제안서 및 1차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

친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PR>
우란분절 법어
효심과 불심은 둘이 아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참으로 무덥고 후덥지근하기만 하던 지루한 장마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뜨거운 태양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메뚜기도 한때라는 말이 있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름은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셨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때를 써서 시원한 바닷가를 찾아가 신나게 해수욕을 즐겼습니까? 아니면 산사를 찾아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새소리, 물소리와 벗 삼아 불심을 키웠습니까? 아니면 피서는 무슨 피서냐 호통치며 공부나 하라시는 부모님들을 원망하며 불쾌지수를 헤아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짜증스러운 여름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든지 지나간 여름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미 시위를 떠나간 화살은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큼 오늘이라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방학도 끝났고 절기도 말복을 지났으니 해수욕이니 피서니 하는 유혹도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부터는 지나간 어제에 미련을 갖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이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불교 행사인 우란분재에 대해서 그 유래와 의의를 말하고 일반 불자 뿐아니라 우리 청소년 불자들이 우란분재를 통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란분절은 범어로 우람바나인데 이를 한문으로 도현(倒顯)이라고 번역 합니다. 도현은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우란분절은 아귀도 등에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망자 즉 삼악도(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행하는 불사를 말합니다.

이 우란분제의 유래를 살펴보면 부처님 당시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제일 뛰어나 신통제일이란 칭호를 얻은 목련존자에게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먹건련존자라고도 하는데 출가하여 수행을 통해 여섯 가지 신통력을 얻게 되었고 그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어느 곳에 태어나셨는지 살펴보았더니,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태어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느 곳에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존자의 신통력으로도 어머님이 계신 곳을 알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려서 어머니의 거처를 찾아냈는데 불행하게도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험한 고통을 받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종류도 한량없이 많은데 아비지옥은 무간 지옥이라고도 하는 지옥으로 팔만사천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근심한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고통이 끝이 날 세 없어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간청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어머니를 아비지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아비지옥은 벗어났으나 생전에 너무도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더 고통이 덜한 흑암지옥으로 옮겨졌을 뿐 지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훌륭한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읽음으로써 흑암지옥에서 어머니를 구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자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란 육도 가운데 한 무리로 항상 목마름과 배고픔에 신음하는 굶주린 귀신을 말하는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불꽃으로 변해서 더욱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존자는 이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보살들을 청하여 등불을 켜고 많은 산목숨을 놓아 주는 등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써 어머니를 아귀의 몸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으로는 태어나지를 못하고 개로 태어났습니다. 한 마리의 개로 태어난 것입니다.

존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어머니가 개의 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개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7월 보름날에 우란분재를 베풀면 너의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7월 보름을 기하여 우란분재를 베풀었더니 어머니는 곧 개의 몸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융종 종정 일공

존자는 개의 몸을 벗어난 어머니를 부처님께 모시고 가서 5백계를 받게 했고 어머니께 "원컨대 어머니는 이제 나쁜 마음을 버리고 바른길로 돌아가시 옵소서" 하고 간곡한 청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효성에 감동한 제석천왕은 존자의 어머니를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래를 가진 우란분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백중절이라는 민속 명절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목련 존자의 일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로 인해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비롯하여 만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아들 딸을 낳았을까요? 이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와 같은 허무 맹랑한 가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에 의하면 연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이란 이세상의 만물은 홀로 도립해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창조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 즉, 서로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달리 말하면 인연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소중
인이란 씨앗과 같고 연이란 물과 공기 햇볕과 같은 것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아무리 따져보아도 알수 없지만 닭은 달걀로 인하여 있고 달걀은 닭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 것만은 아무도 부인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닭은 달걀이 아니고 또한 달걀은 닭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 만물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 즉 연기의 관계요, 인연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인연으로 때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곧 부모와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의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것도 다른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건은 만들지만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능이 아주 다양한 로봇을 만들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기나 파리도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생명의 창조는 불가능 합니다.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각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요 독립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각자가 독립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여 천 가지 만 가지의 다른 형상으로 존재하고 사람만 하더라도 밉고 곱고 크고 작으면 부모형제 일가친척 남녀의 구별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연이 깊고 얕음입니다. 인이란 씨앗과 같고 연이란 물과 공기 햇볕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불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씨앗을 근본으로 하지만 업이라고 하는 연이 다르기 때문에 천 가지 만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업의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이 소중한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문우답'을 '현문현답'으로 만들어내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안문익(法眼文益) 선사에게 각(覺) 상좌(上座)가 찾아왔습니다.

"배로 왔는가? 걸어왔는가?"

"배로 왔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는가?"

"배는 강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가자 선사께서 곁에 있던 납자에게 물었습니다.

"각 상좌가 제대로 안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네가 말해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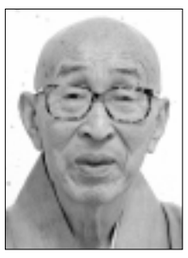
오늘은 하안거 한철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해제날입니다. 이제 모두가 만행길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길을 걸어서 선지식을 참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화두의 주인공인 법안문익 선사는 장경혜릉(長慶慧稜)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나한계침(羅漢桂琛) 선사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장경혜릉과 나한계침은 모두 설봉의존 선사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법안 역시 설봉가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제는 그냥 해제가 아닙니다. 결제동안 공부했던 것을 해제 때는 제방의 선지식과 도반들을 두루 참방하면서 자기공부를 더욱 탁마하는 기간입니다. 멍청하게 다닌다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있는 생채기에 걸려 자빠질 일 뿐입니다. 걸어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낙처(落處)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몽둥이 삼십 방 아니면 귀가 멀어질 만큼 꾸중하는 고함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선지식의 물음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는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질문 한마디 한마디가 공부 길을 묻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선지식은 속복의 거사차림일 수도 있고 재가보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분자리에서 보면 배로 왔던지 걸어왔던지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다.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적인 질문마저도 어떻게 보면 묻는 자의 분별의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드는 납자는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지식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편이 방편인줄 모르고, 또 묻는 낙처를 제대로 모르면 선문답은 그야말로 우문우답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문은 현문이 됩니다. 또 우답은 현답이 됩니다. 우문우답을 현문현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불세수(水不洗水)하고
금불역금(金不易金)이로다
물로는 물을 씻지 못하고
금으로는 금을 바꾸지 못한다.

"달빛을 어떻게 얻어 잡을 것인가"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백로입설(白鷺立雪)이요 명월로화(明月蘆花)라
필경여하(畢竟如何)오 섬광(蟾光)을 촬득마(撮得麼)아
거운문(擧雲門)이 수어운(垂語云)
인인(人人)이 진유광명재(盡有光明在)나 간시불견암혼혼(看時不見暗昏昏)이니라.
작마생(作麼生)이 시제인광명(是諸人光明)고
자대운(自代云)
주고삼문(廚庫三門)이니라
우운(又云) 호사(好事)도 불여무(不如無)니라 하니,
종사민물명치소(宗師憫物明緇素)하니 북지장하철저혼(北地長河撤底渾)이로다.
설두송운(雪竇頌云) 자조열고명(自照列孤明)하야 위군통일선(爲君通一線)이로다.
화사무영(花謝無影)하니 간시수불견(看時誰不見)고 견불견(見不見)이라.
도기우혜입불전(倒騎牛兮入佛殿)이도다 하니,
한암이초(寒岩異草)에 좌착성공(坐着成功)이요 명월백운(明月白雲)이 보시분영(步時分影)이로다.
필경작마(畢竟作麼)오 유동(幽洞)이 불구관쇄의(不拘關鎖意)라 종횡나섭(縱橫那涉) 양두인(兩頭人)이리오.
할(喝)!

흰 해오리는 눈 위에 섰고 밝은 달에 갈대꽃이 나부끼도다.
필경 어떠한고 달빛을 어떻게 얻어 잡을 것인가.

운문 스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사람이 모두 광명이 있으나 보려고 할 때에는 보지 못하고 어두우니라."

어떤 것이 이 모든 사람의 광명인고
스스로 가름하여 이르되,
"부엌 고집과 삼문이니라." (중략)

"큰 용맹심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어야"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오늘이 해제일이라 하는데 어느 때 결제를 했기에 오늘 해제라 합니까?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한결같이 은산철벽을 타파해서 부처가 되려고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선불장(選佛場)입니다.

날짜로 해제, 결제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처를 보기 위해 입정(入定)하는 것이 결제요 부처를 보고서 출정(出定)하는 것이 해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미진한 사람은 은산철벽이 나타날 때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철벽을 타파하려는 사람이 그 한계에 도달하지 않고서 어찌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한걸음도 나아 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장부의 기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맹심을 내어서 물러서지 말아야지요.

이 자리의 대중들은 능히 그때를 당해서 과감히 한걸음 내 딛을 수 있는 대장부라고 자부합니다. 고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백척간두불동인(百尺竿頭不動人)
수연득입미위진(雖然得入未爲眞)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시방세계시전신(十方世界是全身)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참 경지는 못되도다.

백척의 장대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시방세계가 온몸이로다.

이 말은 들어오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생사 해탈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까마득한 절벽 끝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생사 해탈과는 요원한 것입니다. (중략)

"시비는 무슨 헛개비 빈소리인고"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세월이 유수하여 하안거 결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제일 입니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환쟁이 같아서 수행자는 마음속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도(道)가 달라집니다.

수행자 여러분은 지난 결제기간동안 무슨 그림을 그렸습니까?

허나 마음속 그림 역시 모두 허상(虛像)이며 수행이란 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그려진 찌들고 낡은 왜곡된 허상을 모두 없애 버리는 작업이지요.

나는 산중에만 살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은 모르지만 요즈음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 패권(覇權)을 꿈꾸며, 공존(共存)의 보편적 법칙(法則)을 망각한 채 세상을 지배(支配)하고자 겁 없이 날뛰는 사람들이 많고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여 호의호식(好衣好食)하려는 그릇된 욕망에 빠져 있는 범부중생(凡夫衆生)들이 서로 뒤엉켜 투쟁과 갈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성(神聖)하고 존엄(尊嚴)하여 세속적 가치(價値)에 초연(超然)해야 할 종교까지도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때 납자(衲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자는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이 모두 수행이요, 수행은 때를 맞추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結制) 해제(解制)를 따로 구분해야 할 일은 아니나 구태여 나누어 생각해보면 결제는 산사(山寺)에 들어 앉아 도(道)를 익히는 기간이라면 해제는 그동안 익히고 배운 도를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이 머무는 정사(精舍)를 산속 외딴곳에 짓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마을 가운데(변두리 지역)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불교가 자기수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생제도를 위한 보살행에 더욱 역점을 두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부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 목적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 문제인 것입니다. (중략)

고금대교개통 축원과 新해양시대를 기원하는

완도청정해역, 푸른바다(청해)를 위한 축제





◆일 시 : 2007년 10월 13일(土) 오전 11시 ~ 오후 5시
◆장 소 : 완도군 고금면 특설무대
◆문의전화 : 완도 신흥사 061)554-2634, 수향사 061)553-0990 / 011-9616-1303
◆행사내용
1. 푸른 바다를 위한 기도 - 수륙대재(水陸大齋)
2. 푸른 바다를 위한 공연 - 축하공연
3. 푸른 바다를 위한 소원 - 기원등 밝히기
4. 생명사랑의 실천 - 방생

외로운 섬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안과 남해의 섬들을 잇는 대교개설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전남 완도군 고금대교가 공사착공 8년만인 2007. 6. 29(금) 드디어 완공되었다. 이는 비단 고금면민들 뿐 아니라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완도군의 얼마전 신지대교 개통에 이은 또 하나 도약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는 완도군내의 바다와 육지의 주민들과 생명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수륙대재를 봉행하려 한다.

◎ 주최 : 전남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 ◎ 주관 : 고금 수향사, 수효사, 약산 황룡사, 해동사
◎ 후원 : 완도군,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완도군 고금면 지역발전협의회, 완도군 약산면 번영회, 완도군 고금 · 약산면 청년회, 완도군 고금 · 약산면 어류양식협회, BBS광주불교방송



뜨거운 구도열기에 '툭' 오도송 터져 나올 듯

은해사 운부암 운부난야에서 안거중인 스님들의 사시예불 모습. 안거철 선방 대중들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참선 그 자체다.

탐방 하안거 해제 앞둔 '운부난야'

팔공산 은해사에서 3.5km 위쪽에 덩그렇게 떠 있는 운부난야(雲部蘭若).

팔공산 주맥이 줄기차게 뻗어내려 지혈을 뭉쳐 놓은 곳. 좌청룡 우백호가 튼튼하게 외호하고 앞쪽에 눈을 거스르지 않는 높이로 코끼리 형상의 산이 버티어 지혜를 지켜주는 천하에 둘도 없을 도량. 팔공산 운부암(雲浮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 그림은 뙤약볕 아래 노곤해진 한가로운 풍경화가 아니라 늦더위보다 더 뜨거운 구도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선불(選佛) 도량의 진경이다.

이제 일주일 후면 하안거 해제 날. 운부난야의 선사들은 올 여름 안거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

정갈한 도량에서는 발자국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려 뒤꿈치를 들어야 했다. 땀을 닦아내며 보화루에 앉으니 선계(仙界)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온몸의 더위를 씻어 주었다. 정면은 보물 514호 청동보살좌상이 모셔진 원통전이고 우측은 운부난야, 선방이다. 왼쪽은 요사채인 셈인데 벽에 달마 대사가 그림으로 화현해 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다.

'달마 스님은 참선 중. 선원 스님들도 공부 중. 참배는 조용히…'

딱, 딱, 딱!

선방에서 죽비소리가 들린다. 슬쩍 다가가 들여다보니 눈빛 형형한 선사들이 조용히 움직이는데 동작이 물 흐르는 듯하다. 일어나 좌복을 반듯하게 챙겨 놓고 뒷문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원통전으로 들어가는 선사들의 행렬. 열 두 분이다. 사시 예불시간이다.

밖에서 카메라를 들이대자 몸 빠른 선객 한 분이 달려와 제지했다. 말은 하지 않고 다만, 손짓으로 "사진 찍지 마시오." 하는 듯 했고 눈빛으로는 "한 번만 더 찍으면 가만 안 둘 테다" 하는 것 같았다.

근엄하게 이어지던 사시예불이 끝나자 선사들은 다시 물이 흐르듯 움직였다.

점심공양을 하고 포행을 즐기는 두 시간. 선사들은 모두 각자 행동했지만 도량 안에서는 각자의 행동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지어지는, 전체 속의 각자일 뿐이었다.

커다란 목탁이 울린 것은 오후 2시 정각. 스님들은 호미와 괭이 등을 들고 마당가로 모였다. 잡초를 뽑기에 여념이 없었다.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자 역시 손사래를 친다.

12명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열둘인 듯 하나인 듯 거스름이 없는 이유는 뭘까? 적게는 30안거에서 많게는 80안거(40년)를 일념정진 해 온 구참수좌들이기 때문이다. 신참선객일수록 대중이 많은 처소에서 대중의 정진력에 동화되는 것이 좋고 구참일수록 단출한 처소에서 정진해야 화두를 순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백운심처(白雲深處)의 운부난야.

'북마하 남운부'란 말이 있다. 옛날부터 최고의 수행처 하면 북쪽에서는 금강산 마하연을 남쪽에서는 팔공산 운부암을 꼽았다. '영남의 3대 도량'으로는 선산 도리사와 팔공산 성전암 그리고 현풍 도성암을 꼽는데, 운부암이 선원을 열지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이다.

근현대를 대표하는 선지식 성철 스님은 이 도량에서 홀로 한 철 수행을 하고 두 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향곡 스님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주고 떠났는데 "내 공부는 여기서 끝났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성철 스님 뿐이 아니다. 동산 운봉 경봉 향곡 한암 청담 스님 등 선지식들이 두루 거쳐 간 수승한 도량이다. 그러나 48년이나 선방 문이 닫혀 있다가 1998년 지금의 선원장 불산 스님이 일타 스님을 모시고 다시 문을 열어 12~15명의 구참수좌들이 활인검을 벼리는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운부난야는 두 가지 별명을 갖고 있다.

우선 '망각의 도량'이다. 선원장 불산 스님의 설명이 명쾌하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 와서 두어 달 살면 건망증 환자가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야 공부가 되잖아요. 우리 공부란 게 잊는 공부 거든요" 한 곳으로 마음이 골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두가 성성하여 일상의 행동들은 망각의 강물에 던져지는 것이다. 어느 때 그 강물마저 잊을 날 오도송이 툭 마른벼락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또 하나의 별명은 '판검사 도량'. 선원이 문을 닫고 고시생을 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독 이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합격했다. 박철언(前 정무장관)을 비롯해 48명의 판검사를 배출한 도량이다. 세속 공부가 그렇게 잘 되는 곳에서 출세간의 공부가 안 된다면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운력이 끝나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청소를 하고 선방도 청소했다. 청소도 다 끝난 듯한데, 선방에 나오는 스님이 없었다. 사진이라도 한 컷 찍고 싶은 욕심에 한 스님에게 물었다.

"오늘은 참선 안 하십니까?"

"운력 하면서 참선 다 했는데 또 무슨 참선?"

"선방에서…"

"아, 앉아서 하는 참선은 저녁에나 하지…"

더 있어서는 안 될 곳이란 생각이 밀려왔다.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나오다가 뒤돌아보니 아, 보화루가 구름위에 떠 있질 않은가?

영천/글 · 사진=임연태 기자

※ 금주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는 쉽니다

12선사들 일념정진…말없는 눈빛으로 "사진 찍지 마시오"
포행 · 운력 모든 행동 열둘인 듯 하나인 듯 거스름 없어
성철 · 동산 스님 등 두루 거쳐… '판검사 도량'으로도 유명



운력도 참선이다.



방충망 안 정갈한 좌복도 참선이다.

운부선함록(雲浮禪啣錄)

–변윤–

구름이 내려 와 산이 된
산에는 불가사의한 꽃이 피고
산색(山色)따라 꽃이 진다네
낭랑한 새소리, 물소리 모두어
지하수가 샘솟는 그 명지에 운부난야가 있네
항상 흰구름으로 떠 있는 보화루
천신(天神)들이 내려 와 입정(入定)에 든
선정삼매(禪定三昧)의 연못물에는
하안거(夏安居) 눈 푸른 선승들
물구나무 서거나 거꾸로 앉아 좌선 중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상(實相)이라 하네
의정(疑定)의 물결 밑으론
한낮의 뜨거운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마음의 해저 밑을
서슬한 달빛이 꿰뚫고 있네
알 길 없는
구름 길
안은한 신선의 경지
사시사철의 흐름조차 잊고 사네
구름 부리 밑 선당(禪堂) 가까이 쏟아지는
여울물 소리 바람이 일고 꽃이 피고
흰 구름 따라 선객(禪客)이 모여들고
산색이 저물면 꽃이 지네

■운부난야에서 하안거를 나고 있는 시인 변윤(정송) 스님을 만나 "공부가 잘 되십니까?" 물었다. 스님은 대답 없이 가버리더니 잠시 후 다가와서 불쑥 종이 한 장을 내놓았다. 시인은 시로 대답하는 것이 제격이다.

태아영가 49재 엄마, 아빠 참회기도 안내

(2007년 대학입시 수험생 기도와 구병시식해드립니다)

망태아는 낙태된 생명입니다. 부모의 업으로 태어나지 못한 생명입니다. 그 업보로써 태아영가와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태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영가를 위하여 다음생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안내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입재일 : 양력 9월 2일 – 일요일**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회향일 : 양력 10월 21일 – 일요일
기도는 입재 / 3재 기도 : 양력 9월 23일(일) / 5재기도 : 양력 10월 7일(일) - 관욕
7재 기도 : 양력 10월 21일(일) - 회향)

준 비 물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 관욕에 필요한 태아 비누,수건,양말, 옷, 신발 등)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 협 **225051-51-113712 (구담사)**

구담사 찾아오는길

1호차 : 조계사 앞(7:00)⇒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7:10) ⇒ 길음역 10번 출구(7:10) ⇒ 미아삼거리역1번출구(7:20) ⇒ 수유역1번출구(7:30) ⇒도봉산역(8:00)⇒일동시내 ⇒ 구담사

2호차 : [지하철 7호선] 태릉역5번 출구(7:20) ⇒ 노원역3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의정부터미널 앞(8:20) ⇒ 일동시내 ⇒ 구담사

3호차 : [지하철 3호선, 7호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앞(7:20) ⇒ 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일동시내 ⇒ 구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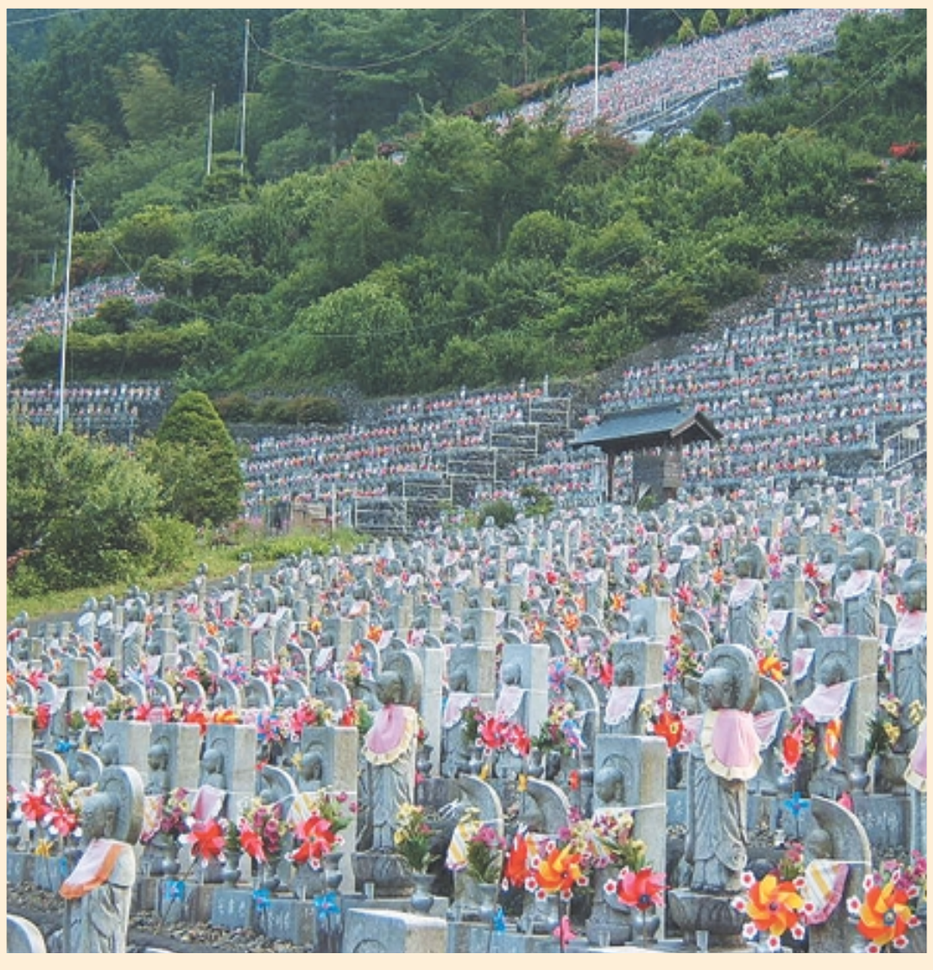
4호차 : [지하철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광나루역3번출구 버스정거장(8:05) ⇒ 구리역앞 GS백화점 육교밑(8:20) ⇒ 구담사

5호차 : [지하철1, 2호선] 신도림역 1번출구 욕교건너 푸르지오앞(06:30) ⇒ [1호선] 구로역 구로사거리 열린웨딩부페앞(06:35) ⇒ [5호선] 목동역 1번출구 좌측(06:45) ⇒ [3호선] 일산 백석역 7번출구(07:15)⇒ 원당역 6번출구(07"30) ⇒ 의정부터미널(08:10)⇒일동시내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일주문



통리원장배 축구대회 개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8월 16~18일 위덕대에서 제2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미니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우승은 진각종 경주교구팀이 차지했다.



스님 노후복지기금마련 음악회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8월 25일 아프리카문화원 공연장에서 '봉선사 수행스님들 노후복지 기금마련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봉행했다.



어린이 불교사진 공모전 개최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은 9월 30일까지 제2회 '천진불의 미소-어린이 불교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051)864-4569



선리연구원 3차 월례 발표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9월 3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 연구원 강당에서 3차 월례 발표회를 개최한다.(02)734-9653



옥천불교사암聯 회장 취임 법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장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은 9월 10일 오후 2시 옥천 관성회관에서 4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한다.(011)455-2652



부산불교지도자 하계 수련회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8월 26~27일 경북 축서사에서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을 법사로 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진흥원, 군종교구에 1억원 지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사진)은 8월 21일 서울 마포동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에게 군 법당 건립 및 군 포교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승희 이사장은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화촉 금강신문 최동진 기자는 9월 9일 오전 11시 40분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홀 1층 세레나데홀에서 신부 류명희양과 화촉을 밝힌다.(042)822-5647

고침 642호 '금동약사여래불 조성 봉안법회' 기사 중 '현성 스님은 8월 27일 오전 10시 홍은동 홍은정사 금동약사여래불 조성 봉안법회를 봉행한다'를 '8월 13일 홍은동 현성정사에서 금동약사여래불 조성 봉안법회를 봉행했다'로 바로잡습니다.

"불교 임종문화 정착 위해 힘쓸 것"

'대한민국 아름다운 기업대상' 자원봉사 부문 대상 수인기획 전옥자 대표

"불교 임종간호의 꽃을 피우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불교 임종간호 봉사활동을 펼쳐온 수인기획 전옥자(56 · 사진) 대표가 8월 23일 '2007 대한민국 아름다운기업대상' 자원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아름다운기업대상'은 지역사회와 함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성룡사 지장회 회장 소임을 맡아 염불봉사를 하던 전 대표는 '죽음을 선고 받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호스피스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천태종사회복지재단 니르바나 호스피스 교육과 서울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종간호, 상장례 교육을 이수한 전 대표는 2000년부터 본격적인 임종간호 봉사활동에 나섰다.



자신이 간호를 맡은 환자가 전화를 하면 주말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다. 하지만 환자와 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임종간호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없으니 봉사회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까 고민하다 2004년 불교상장례회사인 '수인기획'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불자 수의를 개발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수인봉사회는 "현재 호스피스 활동가나 임종간호사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불자 환우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불교 임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앞으로 시골의 폐교 등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수행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02)446-1793 <관련기사 19면>

여수령 기자

성지순례 적극 지원한 경북도지사에 감사패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관 스님은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난 7월 2~3일 대구 · 경북지역에서 진행된 7대 종교지도자 성지순례를 적극 지원한 공로로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 김동환 천도교 교령,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대선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등이 참석했다.

7대 종교지도자 성지순례 행사는 종교지도자들이 각 종교 성지와 시설을 함께 순례함으로써 이웃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종교간 평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

남동우 기자

"東大 동문들의 화합 이끌어낼 것"

전순표 제24대 총동창 회장



"흩어진 동문회를 하나로 묶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국인은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동문들의 화합과 동창회관 건립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3일 동국대 제24대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된 전순표(72 · 사진) (주)세스코 회장은 새 각오를 피력했다.

전 회장이 새롭게 구상하는 동창회는 현재 임원중심 체제에서 회원중심 체제로 전환해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동창회 조직도 경영 마인드를 갖고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방 단위 조직도 확대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고 중앙에선 관리만 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발전기금을 낼 때에는 반드시 동창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해 학교와의 유대를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불교를 접해왔다는 전 회장은 57년 동국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립농촌경제연구소 농촌개발과장을 역임하고 76년 세스코의 전신인 전우방제를 창립했다. 현재 세스코 이외에 팜를 회장 등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나눔의 집 위한 봉사활동 감사"

워싱턴 정신대 대책좇 서옥자 회장



미국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 서옥자(워싱턴 바이블칼리지 상담학과 교수 · 사진) 회장이 8월 21일 서울 영화사에서 나눔의집 대표 월주 스님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 회장은 월주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는 발이 부르트도록 성명을 받으러 다닌 교포들과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보금자리인 나눔의집을 위해 힘쓰시는 월주 스님과 원장 원행 스님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통과된 결의안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일본 정부가 실천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충북교구 법계 품수식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8월 22일 충북교구종무원에서 충북교구 법계품수식을 열고 종사 4명, 종덕 5명, 대덕 20명, 종덕 6명, 선덕 6명 등 41에게 법계 증서를 수여했다. 품수식에는 충북교구 종무원장 원봉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사단 '관악산 나무 살리기' 완공식



조계종 포교사단 회원 100여명은 8월 18일 관악산에서 생명환경자연보호실천회, 과천시 산림조경팀 관계자와 함께 관악산 나무 살리기 공사 완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홍수로 관악산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등산로가 많이 소실돼 포교사단측에서 과천시에 공사 지원을 요청한뒤 4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영담한지미술관 '전통한지와 불교' 교육



청도 영담한지미술관(관장 영담)은 8월 9일~12일 부산 금정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60명을 초청, '전통한지와 불교와의 연관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영담 스님은 "전통한지의 제지술은 종이가 필요했던 스님들에 의해서 그 우수성과 맥이 지켜져 온 자랑스러운 불교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름불자회 어르신들에 식사 공양



60세 이상 불자들의 봉사모임인 한아름불자회(회장 이정자)가 8월 20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 어르신 2000여 명에게 대중공양을 펼쳤다. 이정자(66)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힘내라는 뜻으로 공양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 현장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숙희 이사와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부인 조윤희씨를 비롯한 20여 명이 동참했다.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중앙불교대학원 남 · 여 <승려(행자) 모집>

<3개월 무료지도>

기본과정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범패,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계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소승과 대승불교, 근본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선불교,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교육하면서 지도자적 발성 지도함.

◆ 모집인원 : 30명
◆ 원서접수 : 2007년 9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오전 9시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중앙불교대학원 교수진
- 회암스님 · 前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 고려대학교 노인문제 연구학 출신. 철학박사
- 마정스님 · 종단진흥회 부회장 겸 임제선학원 원장. 철학박사
- 혜성스님 · 바라범패 전수자. 구화종 총무원장
* 기타 필요강사 초빙 강의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 의 : 본대학 사무국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영평사내 국제불교대학연구원 건물)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중앙불교대학원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南北이 하나되는 평화의 다리 이어지길…



천태종 사회부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가 8월 18일 개성 영통사에서 개최한 남북합동 칠월칠석 법회 현장 모습. 맨앞줄 왼쪽 세번째가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이고 그 옆이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이다.

개성 영통사 '남북합동 칠월칠석 법회'

남북 불자 견우직녀 만나듯 한자리… "순례정례화 희망"
법회 후 문화유적 탐방…백중천도법회도 공동 봉행

"남과 북이 함께 법회를 여니 부처님도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우리가 견우와 직녀가 된 느낌이에요."

8월 18일 오전 7시, 천태종 사회부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개성 영통사에서 열리는 칠월칠석 남북합동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250여 성지순례단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었다. 환희심과 설레는 마음이 교차하는 듯 약간씩 상기된 얼굴들이었다.

남북한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한 순례단이 탄 버스 5대는 1시간 30분을 달려 개성 영통사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눈앞에 다섯 개 관을 두른 모양이라는 오관산의 올망졸망한 자태가 들어왔다. 그 양옆으로 고목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연봉들이 병풍처럼 이어져 있었다. 북한 개성 동북쪽 교외인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 고려 태조 왕건의 선조들이 이 산 아래에 살았고, 연인 황진이와 서경덕이 돌아다녔다는 바로 그 산이다.

그 산 자락 한가운데에 시원스럽게 자리잡은 넓은 절이 있었다. 3년 전 북한이 남한 천태종의 기와 등을 지원 받아 복원한 영통사다. 본전인 보광원 앞마당에 고려의 대표적 석탑인 영통사 5층석탑과 동서삼층탑이 자리잡았다.

절 마당에서 법회는 오전 11시부터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혜명 스님은 "견우직녀가 칠월칠석에 만나듯이 우리 남북한 불자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통사 성지순례가 정례화돼 남북 불교도들의 신앙생활이 원만히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도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칠월칠석 법회를 봉행한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헤어져 있다가 일년에 한번씩 만나는 견우와 직녀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원 스님은 "8월 25일에도 우란분절을 맞아 백중천도법회를 이곳 개성 영통사에서 남북이 합동으로 봉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회는 '천수경 독경' '헌향의식' '영산재 공연' '관음정진' '축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남측 천태종 스님 세 명이 바라춤을 선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한 북측 안내원은 "스님들도 춤을 춥네까? 참 신기합네다. 분위기가 흥겹기 보다는 점잖습네다." 옆에서 이 말을 듣던 성지순례단원들은 까르르 참았던 웃음을 터트린다. 하지만 안내원은 왜 웃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이다.

고향이 개성이라 이번 법회에 참석했다는 천태종 신도 최준식 씨(73)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기상이 서려있는 이 곳 영통사에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법회를 볼 수 있어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합동법회 후 성지순례단은 개성 시내 문화유적인 선죽교를 탐방했으며 고려박물관도 참관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개성 성지순례와 관련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영통사 성지순례도 더욱 더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성 영통사/글 · 사진=김주일 기자



선죽교는를 둘러보고 있는 성지순례객들.

표충비, 조선후기 석조 공예술의 진수

■ **선죽교**= 점심 식사 후 고려충신 정몽주가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철퇴에 쓰러졌다는 선죽교로 향했다. 성지순례객들은 모두 다리 위의 정몽주 핏자국부터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선죽교 유적의 백미는 한석봉이 썼다는 다리 동쪽의 선죽교 비석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땀을 흘린다는 다리 서쪽의 표충비다. 특히 18~19세기 영조와 고종이 정몽주의 충절을 기려 거북이 조형물 위에 비각을 세운 표충비는 조선후기 석조 공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최고 걸작이다. 두 임금이 직접 쓴 어제 · 어필을 새겼는데, 왼쪽 영조가 세운 표충비의 글씨는 그의 총애를 받았던 최천약이 직접 새긴 것이다.

고풍스런 한옥에 600여점 유물 전시

■ **고려역사박물관**=고려 최고교육기관이던 국자감(뒷날 성균관)을 개조한 것이다.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잘 자란 1000년 수령의 느티나무, 은행나무와 조화를 이뤄 서울의 성균관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한다. 박물관 안에는 고려청자와 금속활자를 비롯, 불일사 5층탑 등 600여점의 유물이 전시돼있다. 박물관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 안내원이 유물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또한 박물관 앞에는 역시 한복 입은 여성들이 북한의 각종 술과 토종꿀을 비롯한 농수산물과약간의 기념품을 판매한다.



바라춤을 시연하고 있는 남측 천태종 스님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4 · 끝> 선 수행의 길잡이를 마무리하며

선 수행의 길잡이' 교재로 쓰인 <선가귀감>은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 그 길을 일러 놓은 것입니다. <선가귀감>이란 제목의 뜻처럼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선(禪) 수행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06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하여 매주 연재하던 글도 2007년 8월 마지막 주로서 어느덧 회향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후학들을 위하여 이 책을 쓰신 서산 대사의 서문(序文)과 그의 제자 사명 스님의 발문(跋文)에 담긴 옛 선사의 깊은 뜻과 정성을 마음에 새겨 불법 수행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바라며 두 선사의 글로 이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글을 애독해 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서산 대사의 서문

글마다 살아계신 부처님 계실 것이니 공부 힘써야

예전에 불교를 배우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말하지를 않았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보배로 여긴 것은 오직 대장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가면서 외우는 것은 세속 선비들의 글이요, 청하여 지니는 것은 벼슬아치 시(詩)뿐입니다. 그런 글을 고급 종이에다 아름다운 비단으로 책을 꾸미면서 아무리 많아도 족한 줄 모르고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배로 삼는 대상이 예전 사람과 어찌 이다지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예전 사람의 배움에 그 뜻을 두고 대장경 속에 있는 부처님의 글로 보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은 너무나 많아 대장경 속에 있는 글들이 마치 바다처럼 깊고 넓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뒷날 나처럼 공부할 사람들이 본분을 벗어난 곁가지 일에 힘을 쏟을까 걱정이 되었으므로, 대장경 글들 가운데 요점만 추려 수백 마디로 책을 만드니, 문장은 간결하나 오묘한 뜻을 두루 다 갖추었다고 할 만합니다. 이 글로 엄한 스승을 삼아 끝까지 공부해서 오묘한 도리를 얻는다면, 이 글 한 마디 한 마디에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것이니 부지런히 공부에 힘쓰고 또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문자를 떠나 고정 관념을 깨트리는 격외(格外) 도리의 기이한 보배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니, 아직 뛰어난 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정갑자(嘉靖甲子 1564년) 여름
청허당(淸虛堂) 백화(白華) 도인이 첫 글을 쓰다.

■ 사명 스님의 발문

선가귀감은 선·교의 본보기이며 법 실천하는데 좋은 약

<선가귀감>은 조계 노화상 퇴은 큰스님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아! 약 200년에 걸쳐 요즈음까지 부처님의 법이 나날이 쇠퇴하여 참선과 교학을 하는 무리들이 저마다 다른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교학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은 문자찌꺼기에 맛을 붙여 부질없이 바닷가의 모래알만 셀 뿐, 대소승을 막론하고 모든 부처님 가르침 속에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 깨쳐 들어가게 하는 길'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참선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은 '스스로 천진한 성품만 믿어 도를 닦아 깨칠 것이 없다' 하여 우습게보고, 부처님 세상을 이해한 뒤에서야 비로소 발심하여 점차 온갖 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선과 교가 어지럽게 뒤섞여 모래와 금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원각경>에서 "중생은 본래 부처님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본디 미혹이나 깨달음이란 없는 것이라고 여기어 인과를 부정하여 완전히 무시한다면 바로 삿된 소견이 되고, 또 "오랫동안 닦아 무명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참 성품이 망념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영원한 참 성품을 잃어버린다면 이 또한 삿된 소견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위태롭습니다. 부처님의 도가 바로 전하여지지 못함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단 말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을락 말락 이어가는 명맥이, 마치 한 올의 머리카락으로 천근의 무게를 달듯 거의 땅에 떨어져 명맥을 이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노스님께서는 서산(西山)에 있던 10년 동안 바쁘게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여가에 50여 권의 경전이나 논서와 어록을 보시다가 짬짬이 요긴하고 간절한 말들이 있으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절 몇몇 제자들이 공부에 대해서 물으면, 이 내용들을 가르치며 양 떼를 몰듯 넘치는 사람은 눌러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호되게 채찍질하여 깨달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합니까? 노스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간절하였지만, 법문의 수준이 높고 어렵다고 까탈을 부리는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노스님께서는 그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 각 구절마다 주해를 달아 차례차례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글들의 내용이 하나로 쭉 이어져 뜻이 잘 통하니, 팔만대장경의 요점과 다섯 종파의 근원이 모조리 여기에 다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마다 이치에 맞고 구절구절이 종지(宗旨)에 어긋남이 없으니 이에 편협했던 사람은 원만해지고 막혔던 이는 시원스레 통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글이 선과 교의 본보기라 할 만하고 부처님의 법을 알고 실천하는 데에 좋은 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스님께는 늘 이 공부에 대해서 한 말씀 반 구절이라도 마치 칼날 위를 걷듯 문자로 기록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글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당신의 솜씨를 내보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보원(普願) 스님이 이 글을 정서하고 의천(義天) 스님이 교정을 하니, 정원(淨源), 태상(太常), 법융(法融) 스님들이 머리 숙여 절을 하며 "전에 없던 훌륭한 글들이다"라고 찬탄하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이 함께 수중에 있던 돈을 털어 목판을 새기고 이 글을 세상에 알려 큰스님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가르침은 깊고 넓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바다 속에 들어가 용의 구슬을 찾고 귀한 산호를 캐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육지처럼 자유롭지 않으니 물만 바라보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려낸 공(功)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 준 노스님의 은혜야말로 산같이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설사 천 번 만 번 뼈와 살이 으스러지도록 이 목숨을 바친들 어찌 노스님의 은혜를 털끝만치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천리 밖에서 이 글을 보고 들어도 놀라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받들어 읽고 보배로 삼는다면, 참으로 천 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만력기묘(萬曆己卯 1579년) 봄
조계종유(曹溪宗遺) 유정(惟政) 구결(口訣)에 절하고 삼가 발문을 쓰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6>

정신분석과 불교-6

정신치료에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꽤 있다. 불교에는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신 병원이나 심리상담소를 찾는 주요 증상은 정신증, 신경증, 성격 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와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생활상의 문제다. 그러나 불경에는 이러한 심리 장애를 치료한 사례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경에 수록된 많은 법문이 일반인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수승한 승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게끔 이끄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정신분석의 대상은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무의식 속에 억압된 내용이 자아를 압도하여 자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목표는 무의식적인 욕구나 충동을 의식화하고 통합하여 성숙한 적응 방식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지금까지 유아 · 아동기적 갈등을 방어하는데 사용했던 심리적 에너지를 현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성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정신분석은 애당초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전한 학문이니만큼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론도 많이 개발되었다. 프로이트 시대의 대표적인 기법이 자유연상 · 저항 · 전이 · 꿈의 분석과 해석이다. 자유연상과 저항, 전이, 꿈 등을 통해 내담자의 미로 같은 마음의 연쇄를 따라가다 보면 내담자의 마음의 내력과 현재의 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가가 이들의 관련성과 의미를 해석해 주면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 이후에는 환자의 증상의 원인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경험에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정서적 재경험이 기억의 탐구와 지적인 재구성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교정적 정서 체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으로, 내담자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과거에 그가 처리할 수 없었던 정서적 상황에 다시 노출시킴으로써 이전 경험의 외상적(traumatic) 영향을 수정하는 것이다.

정신분석은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해 과거 경험에 천착
불교는 과보 받아들이고 현재 철저히 참구 미래 준비

이렇게 정신분석은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과거의 심리적 경험에 천착한다. 그리하여 프로이트가 말한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반면 불교는 이미 흘러간 과거를 부여잡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 업인의 과보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를 철저히 참구함으로써 미래를 바꾸어 나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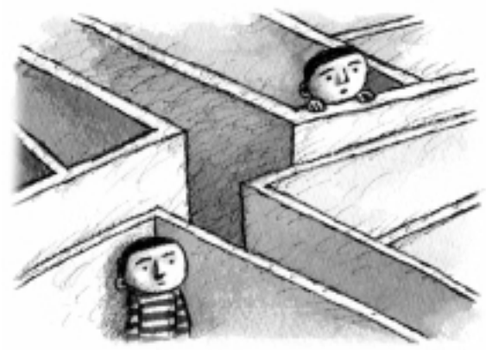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오탁악세(五濁惡世)

흔히 요즘 세상을 오탁악세(五濁惡世)에 비유한다. 오탁악세는 다섯 가지 더러움(不淨) 즉 겁탁(劫濁),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명탁(命濁)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세상이라는 뜻이다. <법화경> 방편품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이 가장 긴 8만4000세로부터 줄어들어 2만세 때에 이르면 점차 다섯 가지 더러움이 많아진다고 했다.

불광법회에서 故 광덕 스님은 오탁악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겁탁은 시대가 탁하다는 뜻인데 오늘날 전쟁, 천재지변, 역병, 기근 등 사회적인 고난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국제 평화운동에 기여해야 한다.

두 번째 견탁은 사상이 물들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그 사람만 불행해지고 그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고 천재지변이 생기는 등 못 산다. 전법의 근본은 견탁을 없애는 데 있다. 견탁을 없애면 겁탁도 없어진다.

세 번째는 번뇌탁이다. 탐진치 삼독심, 남을 원망하는 생각, 온갖 정신적인 악덕이 성한 것은 번뇌가 많기 때문이다. 번뇌가 많다는 것은 자기 본성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경계에 빠진 마음이다.

네 번째 중생탁은 견탁, 번뇌탁의 결과로 인간의 과보가 점점 쇠퇴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몸은 약해지고 괴로움은 많고 복이 적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명탁(命濁)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의미이다.

강지연 기자

봉 행

불기 2551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불기 2551년 9월 4일 ~ 9월 6일(음, 7월 23일 - 25일)
◆입 재 : 불기 2551년 9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단, 당일 오후 2시까지 입소등록 완료 요망)
◆대 상 : 대한불교대승종 전 종도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장 소 : 다보수련원 (충북 괴산군 청연면 삼송리 산 392-10 ☎ 043)833-7789)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2)443-5078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638-4088 / 총무부장 011-507-2837
(각 교구 종무원)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 대한불교대승종 각 지방종무원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종의회 · 대한불교대승종 전 국 신 도 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암 혜심 합장

용두산 미타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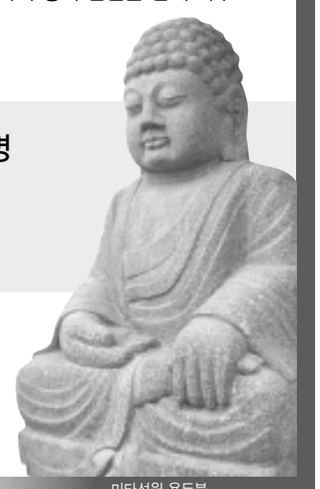
재가선방 추계산철결제 방부안내



편안히 오셔서 수행의 즐거움과 법열(法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심속의 참선전문 수행도량 미타선원의 하안거결제가 50여 명 수행자들의 뜨거운 수행열기와 원력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의 열기를 추계산철결제로 오롯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뜻이 있는 분들은 방부접수 하시어 수행의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지 하 림 합장

방 부 : 선열당(禪悅堂), 안심당(安心堂) 각 20여명
입방일 : 불기 2551년 9월 10일 월요일
문의 및 접수 : 051)253-8687



대한불교 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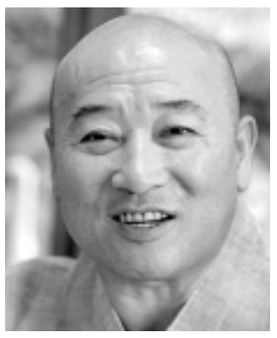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용두산 에스컬레이터 첫번째 하차점)
T : 051)253-8687 F : 051)253-8684 홈페이지 www.mitazen.net

미타선원 용두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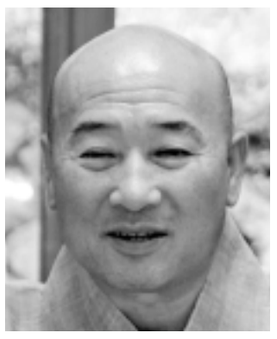


“잠자는 시간 쪼개서라도 공부해야”

선지식을 찾아서 향과









향과 스님 (통도사 선덕)

솔숲 사이로 난 길을 걸었다. 오솔길은 계곡을 끼고 있어 눈과 귀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한참 걷다보니 ‘다비장 가는 길’이라는 팻말이 보이고, 줄지어 있는 부도탑을 만났다. 향과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다. 그윽한 향기로 스님을 먼저 본 기분이었다.

향과 스님은 신심 깊은 불교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는 유복했는데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아버지의 병고로 집안이 어려워졌다. 이런저런 연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니 동진출가한 셈이다. 출가한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던 것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강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그래서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교육학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공부란 생사해탈 공부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간접적인 공부는 되었겠지만, 생사해탈을 위한 직접적인 공부는 아니란 것이 스님의 말씀이다.

“생사해탈이란 곧 육도윤회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생각은 모두 번뇌망상입니다. 지혜로운 생각만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잠재우는 것이 생사해탈입니다. 이렇게 번뇌망상을 잠재우고 끊어나가다 보면 궁극에 가서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무상관을 지금 여기에서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생사해탈이지 뭡니까? 그런데 당장 할일도 하지 않고 생사해탈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도 번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요?”

향과 스님이 생각하는 생사해탈관은 이러하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참선하기를 권한다. 참선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스스로가 변화된 자신을 느낄 수 있단다. “2, 30대는 돈, 명예, 사랑으로 인해 바쁘게 지나가지만 40, 50대가 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젊을 때와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한때는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필요없을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참선의 맛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할일 하지 않고 생사해탈만 찾는다면 그것도 번뇌
선방이 아니라도 생활속에서 선정의 습관 길러야
출가 자체가 수행…사람 감화 시켜야 포교 이어져

부처님은 선정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으며, 제자들에게 선정을 강조하였다. 향과 스님 또한 그 선정의 맛을 보았기에 참선하기를 적극 권하는 것이다.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스님께 여쭈었다.

“첫째는 화를 잘 내는 마음이나 다투는 마음이 없어야 참선 수행이 됩니다. 둘째는 게으름의 때가 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마음을 헛되이 쓰지 않고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앞에서는 모든 불행도 피해갑니다. 넷째는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다섯 가지 마음이 사라질 때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이 단계에 이르러야 겨우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볼 수가 있어요. 구태여 깊은 산중이나 선방이 아니더라도 집이나 직장에서 또 버스나 전철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정의 습관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식도 있고 많은 스승이 있지만 향과 스님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이 최고의 스승이며, 삶의 모델이다.

“진주 연화사 주지를 6년 정도 하고 나서 법당을 중창했어요. 어느 날 법당공사를 하면서 부처님은 35세에 자기완성을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내 나이가 36살 이었어요. 7개월 만에 법당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미련 없이 연화사를 떠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생애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꾸미고 치장하고 입히고 좋은 것만 먹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다음에 잘하면 되고, 다음에 사과하면 된다고 행동과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향과 스님은 시적(施寂)불교를 주창하고 있다. 시적불교의 정신은 수행과 교육과 포교이다. 향과 스님은 1973년 진주 포교당 연화사 주지직에 부임하면서 시적불교를 만들었다. 노령화 되어 있는 불교를 젊은 불교로 바꾸기 위해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육성하였는가 하면 새싹불자가 자라나도록 연화유치원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음력법회를 대신하여 일요법회로 전환하였다. 스님은 결제철이 되면 선원에서 안거를 하였고, 해제철에는 전법을 통하여 수행을 하였다. 그리고 법연의 기회를 넓히고자 스님은 출장법회를 시도하였다. 향과 스님은 불교를 완전히 개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사찰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목탁 치는 것부터 해서 사찰의 살림살이를 신도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것 또한 부처님의 겸허함과 평등정신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다.

부처님이 평생을 대중과 함께 하였듯이, 대중과 더불어 사는 것이 불법승 삼보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향과 스님은 생각한다. 수행자는 대중사이에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머리를 깎고 산다는 것 이 자체가 공인중의 공인이며, 공인이라면 사람들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출가자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 포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라고 절집에서는 말하는 것이지요.”

참선을 할 때 화두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화두는 남이 주는 것보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였다. 자기가 일으켜야 할 의문인데, 그것이 스스로 잘 안되니까 주입식으로 의심을 일으키도록 ‘이 뭣고’라든가 ‘무(無)’자 화두를 주는 것이란다. 화두만이 선이 아니라고 한다. ‘나무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 명호를 화두처럼 염한다면 화두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 참으로 신선하게 들렸다. 바다에 그물을 쳐 놓으면 그물코만 잡아당기면 그물이 다 잡아올려지듯이, 어느 것이라도 진심으로 염한다면 팔만장경도 하나로 다 들어올려질 수 있단다. 향과 스님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해야 하며, 시간이 없다면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과 스님의 말씀에 이끌려 시간을 잊고 있었는데, 창호문 밖에서 후드득거리는 빗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빗소리가 먼 세상 밖의 소리같았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향과 스님은 통도사에서 박청하 화상을 은사로 득도 수계. 윤월하 화상을 계사로 비구 및 보살계 수지.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졸업.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선원 등지에서 17안거 성만. 국민대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조계종 6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조계종 총무원 규정부장, 조계종 비상종단 운영위원 역임. 시적사 회주이며, 통도사 선덕으로 주석하고 있다.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정가 30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수월 스님(1)

수월, 이 숭늉그릇을 똑바로 일러 보소
만공, (숭늉그릇을 밖으로 집어 던진다)
수월, 참으로 잘 하였소

어느 날,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과 한담을 나누다가, 숭늉 물그릇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 숭늉그릇을 숭늉그릇이라 하지도 말고, 숭늉그릇 아니라 하지도 말고, 한 마디 똑바로 일러 보소."

만공 스님이 문득, 숭늉그릇을 들어 밖으로 집어던지고 묵묵히 앉아 있으니, 수월 스님이 "참으로 잘 하였소" 하고 찬탄하였다.



'배측공비' 진퇴양난 공격에 묵묵히 '본래무일물' 경지 보여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수월(水月, 1855~1928) 스님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로 지냈기에, 글을 읽지 못했다. 29세 되던 어느 날, 탁발승을 만나 밤새워 이야기를 듣고 인근 서산군 천장암으로 출가하였다. 그때 천장암에는 경허(鏡虛) 스님의 형인 태허(太虛) 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어머니를 모셔다가 봉양하고 있었다. 경허 스님은 간혹 어머니와 형이 있는 천장암을 오가고 있었다.

스승 경허 스님은 수월 행자에게 천수다라니를 외우도록 하였다. 수월 스님은 33세 되던 해 겨울 동안 천수다라니 정진으로 불망념지(不忘念智)를 얻어 심지(心地)를 깨닫고는 경허 선사의 법을 이었다. 이때부터 스님은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얻고 잠이 없어졌다고 한다.

뒷날 만공(滿空) 스님이 입산하고 혜월(慧月) 스님이 사미로 들어왔는데, 천장암에서 이렇게 만난 '경허의 세 달'은 "수월이 북쪽, 혜월이 남쪽, 만공이 가운데에 남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경허 선사의 수제자인 수월 스님은 위의 법문답을 나눈 뒤에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뒤 만공 스님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위의 공안에서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던진 질문은 "진실에 접촉해도 틀리고, 배반해도 잘못된 것(背觸公非)"이 되고 마는 진퇴양난의 공격이 아닐 수 없다. 숭늉 그릇이라고 하는 '이름과 모양(名相)'이란 올가미에 걸려들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순간, '흙덩이를 쫓는 개(韓盧逐塊)'가 되고 만다. 언어와 생각을 떠나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선(禪)은 철저히 상대적 개념의 세계를 떠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만공 스님 역시 이론이나 개념을 초월해, 자기와 숭늉그릇이란 주·객을 모두 잊은 채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경지를 묵묵히 말없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같은 사자굴에 사는 사자 새끼임을 증명하였다.

이 공안은 물병을 발로 찬 선문답으로 대위산의 주인이 된 위산영우 선사의 법문답과 유사하다. 위산 스님은 처음 백장 스님 문하에서 전좌(典座)를 맡고 있었다. 백장은 대위산의 주인을 선출하려고 물병을 들고 땅위에 놓으면서 물었다.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무어라고 부르겠느냐?" 수좌가 말했다. "장작이라 불러서는 안 되지요." 백장이 이번에는 위산에게 물었다. 위산은 물병을 발로 차버리고 나갔다. 백장은 웃으면서 "수좌가 촌놈에게 졌다"고 말하며 위산을 개산조로 삼았던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염불선 실참·교리 공부로 '선교쌍수'

"큰스님, 얼마만큼 부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자의 삶>중에서)

1982년 백장암에서 자훈 박병섭 거사가 청화(1923~2003) 스님과 나눈 문답이다. 반세기동안 장좌불와와 하루 한 끼 식사 등 투철한 수행과 무소유를 실천한 청화 스님은 한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의 고통을 어루만진 큰스님으로 기억되고 있다.

염불선을 중심으로 모든 수행을 회통(會通)한 원통(圓通)불교의 주창자였던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의 수행가풍을 널리 펴기 위해 개설된 '수미산' 홈페이지를 비롯해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 둥지를 튼 '금강' 카페에는 큰스님을 생전에 뵙지 못한 많은 불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법문을 접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특히 4800여명에 이르는 '금강' 카페(cafe.daum.net/vajra) 회원들은 카페지기이자 지도법사인 경주 배광식(58) 국제포교사의 지도아래 금강정진회와 금강강독회를 만들어 매월 철야 염불선 정진과 법문 공부를 이어 오고 있다.

8월 14일,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 하염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어느새 30여 금강강독회(회장 배원룡) 회원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제주도 등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도 여럿 있을 정도로 인터넷 카페로서는 참여율이 높다.

"마음은 허공과 같을새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회원들은 삼귀의, 반야심경, 입정(入定)에 이어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을 봉독한다.

청화 스님의 출·재가 제자들이 법회 때마다 외우고 틈틈이 사경하는 보리방편문은 '자기의 부처 성품'을 보고 도(道)를 깨치는 방편이란 뜻이다.

청화 스님의 스승인 금타(金陀) 스님이 깊은 선정삼매 속에서 체득한 관상(觀相)염불 행법이다. 현상과 실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우주만유를 하나의 도리로 통달한 이 법문은 정(定)과 혜(慧)를 고르게 유지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묘결(妙訣)이라 한다.

이 법문을 깊이 읽어서 뜻을 투철히 안 후에, '보리방편문'의 제1절 '아미타불(阿彌陀佛)' 부분을 베껴서 벽면에 붙여놓고, 앉아서 보고 생각하되 관(觀)의 일상삼매(一相三昧: 일체를 한 부처로 보는 삼매)로 부처 성품을 보고, 염(念)의 일행삼매(一行三昧: 일상삼매가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삼매)로 도를 깨닫는 수행법이다.

청화 스님은 생전에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면 밖에 계신 부처님께서 가피를 준다고 생각하면 방편염불이며,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우주생명 자체이신 부처를 안 떠나고 부처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항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염불선이다"고 하였다.

때문에 마음을 생멸(生滅)이 없는 불성자리에 바탕 하여, 보리방편문을 읽고 또 읽어 깊이 염(念)하여 우주생명의 대명사인 아미타 부처님으로 통일돼 가는 것이 이 수행법의 요체이다.

회원들은 이어, 청화 스님의 법어집인 <원통불법의 요체>(성륜각) 제2장 '교상(敎相)과 수행론의 변천' 부분을 돌아가며 읽는다. 중국불교의 교상과 관심(觀心), 법상종의 삼시교(三時敎), 천태5교관 등 상당히 전문적인 교리를 찬찬히 사유하며 읽는다.

28쪽 분량의 적지 않은 분량을 모두 읽고 난 후, 고문인 배광식 법사가 법문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평소 아미타불 정근을 하루도 쉬지 않는 염불선 수행자들이지만, 교리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는 모습이 신선하다. 보통 수행 위주로 정진하는 불자들은 경전과 교리를 무시하기 쉬운데, 금강 카페 회원들은 실참과 교학을 병행하는 선교쌍수(禪敎雙修)를 강조하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자유토론 시간에는 저마다 한 달 동안 수행하며 느낀 점들을 상호 공유한다.

한 수행자가 "처음 염불할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정진을 하면 할수록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언을 구하자, 각자의 경험을 말하며 용기를 준다.

"수행을 통해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더욱 많아지죠. 더 큰 용맹심을 내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면 환희심이 나서 더욱 잘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원하는 게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바라는 바가 없는 무원(無願) 기도가 되어야 정진이 잘 됩니다."

다른 회원이 딸이 8박9일 석남사 수행을 통해 부쩍 성장해서 대견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배원룡 회장이 일상 속의 공부 자세를 강조한다.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늘 '부처님 마음(佛心)'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날 처음 법회에 참석한 한 보살은 염불, 주력, 사경, 참선 등 여러 수행법을 해보아도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배광식 법사가 "수행방법은 평생 1가지로 꾸준히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일단 '보리방편문'을 읽고 외우며 사경(寫經)을 해보시라"고 권한다.

3시간에 걸친 진지한 법회는 발원문 봉독과 사홍서원을 끝으로 회향되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며 스승의 유지를 잇고 있는 금강 카페 회원들을 보면서, 생전에 친견했던 청화 스님의 밝고 청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며 부처를 깨달아가는 공부가 바로 염불선'임을 자각시킨 스님의 원력이 온오프라인의 인드라망을 통해 꽃피울 날이 멀지 않으리라 기대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청화 스님 수행 가풍 이어가는 금강강독회





금강강독회 회원들이 우리는선우 법당에 모여 공부하는 모습(위). 배광식 법사(아래)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10일 집중수행=천안 호두마을은 8월 31일~9월 9일, 9월 21~30일 성오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9월 14~16일에는 평등 스님이 사마타 및 위빠사나를 지도한다. (041)567-2841

●위빠사나 초보교육=과천 보리수선원은 9월 3~14일 제 101차 위빠사나 초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9월 21~26일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30분 한가위 특별연휴 수행을 진행한다. (02)517-2871

● 금강경 법회 및 철야정진=김천 인적사는 9월 9일(매월 둘째 일) 오전 10시 30분, 금강경 및 참선법회를 연다. 9월 22일(매월 넷째 토)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는 철야용맹정진을 실시한다. (054)431-1192

● 일요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는 9월 2일(매달 첫째 일) 오전 10시 성남 정토사에서 김말환 법사의 지도로 염불정진법회를 연다. (031)723-9797



元·氣·回·復 품격높은 최고의선물!!!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복수심 내려놓고 자비심 키우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㉙복수보다 힘든 것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놈에게 꼭 복수해야 합니다."

S씨가 험한 표정으로 말했다. 벌써 전과가 몇 번째인 그는 몇 년 전 지방 교도소 복역 도중 불교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 전엔 관심도 없었고 어쩌다 불교 책을 보면 한문이 많고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좀 달랐다. 사십이 넘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기가 싫고 교도소 생활도 지긋지긋하였다. 그리고 불교상담을 담당한 법사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 줄 내용을 자상하게 물어보고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을 멀리서 일부러 자신을 보러 오면서도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필요한 것도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성의가 고마워서 약속대로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사경하였다. 스님이 한글로 풀이하셨다는 내용이라 한문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였다.

처음에는 "전 글씨 잘 못쓰는데요" 하였지만 법사는 "진리의 말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부처님은 쓰는 사람의 마음만을 보신다는 것이었다. 과연 부처님이 이런 곳에 갇혀있는 보잘것 없는 나 같은 사람까지 아실까? 믿기는 어려웠지만 정성껏 쓰는 만큼 지어 놓은 업도 녹는다고 하니 감사한 일이었다. 결국 출소하면 마음잡고 살기로 한 것이다.

업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그러나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 이번 일은 동료였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억울했다. 배신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나가서 꼭 그 원수는 갚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면 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바르게살기로 법사님과 약속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되었다.

동료의 배신으로 교도소 복역
증오심으로 출소 후 복수 계획
'마음의 힘' 단련으로 용서 결심

몇 번을 망설이다 상담 시간에 털어놓기로 했다. 사정을 말하고 "복수해야지요, 저도 사나이인데! 그리고 사람 하나 손보는 것 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제가 이래 뵈도 운동을…" 하였다.

약간은 자랑스럽게 얼마나 험한 일도 했었는지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법사는 조용히 "복수는 쉬운 일이지요" 하는 것 아닌가. "법사님, 쉬운 건 아닙니다. 상대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법사는 정색을 하고 "그래도 당한 만큼 돌려준다, 복수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짐승도 때려 보세요, 가만히 있나요." 생각해 보니 그렇기는 했다. 법사는 "증오하는 것도 쉬워요. 당하면 누구나 상대를 미워하니까요. 그러나 그러면 영원히 그 업에 묶이는 겁니다. 증오나 복수는 돌고 돌게 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같은 인연끼리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셨어요.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이제까지와 달리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이 변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고 싶으면 마음을 바르게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음싸움에서 이기기

"복수보다 백 번 천 번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증오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용서하며 하물며 기도라니. "전 못하겠어요." "그래요, 아직 못하시겠지요. 불자가 된다는 것은 몸싸움과는 비할 수 없이 힘든 마음싸움을 하는 거예요." 몸싸움이라면 자신 있는데 마음싸움이라니 그런 건 생각 못했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음싸움을 해 온 분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위한 싸움, 업을 바꾸려는 정진이지요. 몸의 근육도 단련하면 강해지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노력할수록 정법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날 밤 기도하며 S씨는 복수는 진짜 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체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니 바로 부처님 마음의 힘, 자비로구나 하는 생각에 놀랐다. 아직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난생처음 바른 마음의 힘을 한번 길러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도선사 9월 5일, 7관음 33일 기도 입재**=서울 도선사가 9월 5일 7관음 33일기도 및 소원성취 등(燈)불사를 입재한다. 7관음 기도는 2003년 성관세음보살을 시작으로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7관음보살에 대해 올린 기도이다. 지난해 7관음보살에 대한 관음기도를 마무리한 도선사는 올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성관음과 천수관세음보살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도하게 될 성관음은 모든 관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고려 불화 속 관음보살도 중에서 수월관음이 성관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천수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자비스러운 눈으로 중생을 보고, 1000개의 자비스러운 손으로 중생을 섭취한다고 했기에, 무수한 관음 가운데서 자비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7관음 33일기도에 동참하는 불자들에게는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옴 마니 반메 훔'이 새겨진 도장을 경명주사로 낙관하여 나눠준다. (02)993-3161

●**육지장사 삼보불교대학 개강**=양주 육지장사가 9월 4일 삼보불교대학을 개강한다. 삼보불교대학에서는 불교 이해와 신행, 블교문화, 불교사의 이해, 포교이해론, 경전의 이해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을 비롯해, 약천사 주지 허정 스님, 동국대 김호귀 박사, 윤선웅 상임법사 등이 교수진에 포진했다. (02)352-6406

●**화계사 신도교육 실시**=서울 화계사가 9월 4일부터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개월 기본교육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불교입문〉을 교재로 대적광전에서 수업한다. 6개월 교양과정은 〈예불문〉 〈천수경〉을 교재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의가 열린다. 1년 코스인 경전연구반은 불교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강의한다. 교재는 〈사십이장경〉. (02)997-646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상담사 강좌**=동국대 사회교육원이 1년 과정의 불교상담사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기본 교리와 상담이론 등을 배우게 될 불교상담사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열린다. 1년간 강좌를 이수하면 동국대에서 발행하는 불교상담사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형을 거쳐 불교상담원에서 불교상담법사증을 수여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02) 2260-3728~9

●**능인불교대학 44기 수강생 모집**=서울 능인선원이 능인불교대학 4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간은 9월 4일 오전 10시, 야간은 9월 5일 오후 7시에 각각 개강한다. 불교기초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사찰에서의 기본예절, 생활의 지혜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02)577-5800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 은인

심중선(가명) 대전교도소

지금 저의 머리맡에는 염주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같이 보고 만지며 제 스스로에게 위로를 합니다. 어느덧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한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반성을 하며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용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도 낯설고 적응이 되질 않아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제 곁에 와서 "종교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며 한 권의 성경책을 주었고 한 구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서였는지 눈으로 읽고는 있지만 마음은 허공에 떠 있는 듯 갈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갔는데 우연치 않게, 아니 필연처럼 한 분의 스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무런 말없이 지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합께 하며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보니 이 분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 문병성

수감생활 중 스님 만나 불교와 '인연'
마음의 평안 얻고 '깨달음' 공부 정진

"스님도 죄를 짓고 이런 곳에 오다니 별 수 없구나"라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 분을 대하였던 처음과는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무모함보다는 사람을 믿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차츰 그분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며 진정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제 마음 속내를 모두 얘기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덧 그분께는 제가 가진 모든 아픔까지도 다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종교적인 이념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이 마음 속 한구석에서 끓어오름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하라"는 옛말처럼 저는 하나 둘씩 그 분을 닮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합장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또 아침저녁으로는 벽을 보고 참선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여 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 마음에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음으로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항상 불안해하고 조바심 많으며 작아보였던 제 마음이, 남을 배려하고 기분 좋지 않더라도 속으로 삭히며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에게서 불교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으며 제 자신이 그 동안 얼마나 헛되이 살아왔었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스님께서는 이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스님께서는 나가시며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절대 잃지 말고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술하신 책을 한 권 넣어 주셨는데 그 책의 첫 표지에는 '인연공덕(因緣功德)'이라는 한자와 함께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힘이 들 때 읽어보라며 좋은 글들을 적어 두셨습니다. 스님이 가시고 난 후 혼자서 눈시울을 적시며 많은 그리움과 정을 느꼈습니다. 불가에서 사람의 인연은 억겁 년을 이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며 그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대전교도소로 이감 와서 출력을 한지도 2년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 집회에 나가 더 배우고 깨달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스님을 통해서 보았던 불교라는 종교가 저에겐 지금껏 살면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껏 지내 온 날들보다 지내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 요즘에도 저는 아침저녁으로 염주를 손에 쥐고 관세음보살께 기원드립니다. 지금 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아니 더는 나빠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스스로 부처가 된다'고 믿고 앞으로는 더욱 정진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작은 일깨움과 삶의 안식이 되어주신 스님의 온화함을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그때와는 다른, 하지만 마음만은 그때와 같은 초심으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욱 전념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며 모든 분들이 성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끝>

옥천 대성사 주최 '제1회 전국 수형자 효 문학작품' 공모 효 편지 특별상 수상작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이내 배송)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놀면서 몸튼튼 마음튼튼



선무도는 몸의 유연성을 키우고 잘 쓰지 않는 근육을 풀어 준다.

'선무도' 들어봤나요?



사범님의 지도에 따라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킨다.

서울 창덕궁 돈화문과 가까운 곳에 '선무도'라는 간판이 보이는 건물이 있다. 주로 정신적인 높은 경지를 이르는 '선(禪)'과 육체의 단련을 의미하는 '무(武)'라는 글자가 만났다. 아하, 이곳은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닦는 곳이구나!

오후 5시. 초등학생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좌선을 하고 있다. 명상에 잠긴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명상 음악과 함께 사범님의 지도에 따라 호흡하고 천천히 주어진 동작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아이들. 평일 오후 5~6시는 주로 어린이청소년들의 시간이다.

그렇다고 계속 좌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차기, 주먹 단련 등도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이때만 들어와 보면 무술 비슷하다고 생각할 터.

선무도 김무겸 원장은 "선무도는 참선의 원류에 해당하는 수행법으로 누구나 자신의 수행 정도에 맞게 수련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선무도가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좋은 점은 뭘까. 종로에서 1년 동안 수련했다는 병구(13)는 "몸이 유연해져서 동작이 잘 된다"며 좋아한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느라 몸이 뻣뻣해지기 쉽다. 병구 역시 처음에는 다리도 잘 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친구들보다 유연한 몸을 자랑한다.

"선무도는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면서 저의 수련시간이기도 해요. 가끔 하기 싫은 동작들도 있는데요, 그런 동작들이 잘 되는 날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병구의 말처럼 사람마다 몸을 쓰는 부위가 다르다 보니 잘 되는 동작과 잘 되지 않는 동작이 서로 다르다. 그런 몸을 계속 풀어주면서 정상으로 돌려놓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무도다.

컴퓨터 등으로 뻣뻣해진 몸 반복 동작으로 몸 유연하게 편안하고 간단해 누구나 가능

선무도를 한 번 시작한 아이들은 거의 몇 년 씩 수련을 계속한다. 민주(11)는 수련한지 4년째, 재연이(16)는 7년째다. 아이들 시간이라 이어달리기, 한 발로 뛰기 등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아이들이 선무도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자신도 모르게, 놀면서 몸이 단련되는 효과를 보고 있으니 말이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이 몸은 커졌지만 체력은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아이들에게 체력단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몸만 단련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이들에게 마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불자라면 다른 좋은 무술, 수행도 많이 있지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질 수 있는 선무도를 접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이다.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선무도 수련.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수련한다는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자. 김무겸 원장의 말처럼 선무도는 "자신의 근기에 맞게, 편안하고 간단한 원리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혹 짧은 코스로 선무도가 무엇인지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경주 골굴사 템플스테이를 이용해 보자. 오전과 오후 모두 수련 시간이 있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불교 교리공부에 판소리나 다도 등 재미있는 과정들도 많이 들어 있다.

또 하나 소식이 있다. 서울 종로 김무겸 원장이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선무도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있다면 관비, 도복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밝힌 것. 관심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은

따라해보세요

선무도의 가장 기초는 '유연공'이다. 이는 18개의 동작으로 이뤄져있으며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수련. 한 동작 당 10회씩 두 번 하는 것이 기본이다.

발가락운동 : 양발을 뻗고 허리는 세운 채 앉아 엄지발가락을 밀었다 당겼다 반복한다.
발목 운동 : 같은 자세로 발목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돌린다.
다리 흔들기 : 무릎을 잡고 좌우로 흔든다.
무릎 흔들기 : 양발을 끌어당겨 손으로 잡고 무릎을 아래위로 흔든다.
윗몸 숙이기 : 무릎을 펴고 바로 앉아 발끝을 앞으로 밀어 10회, 당겨서 10회 윗몸을 숙인다.
손가락 운동 : 무릎과 허리를 편 상태로 양팔을 앞으로 뻗어 주먹을 10회씩 줬다 편다.
옆구리 운동 : 양 다리를 벌리고 앉아 한 손은 뒤로 짚고 다른 손은 주먹을 쥐고 흔든다.
허리 들기 : 두 손을 뒤로 짚고 허리를 든다.
목 운동 : 양 다리를 쭉 뻗어 벌린 채로 양 손은 바닥에 짚고 목을 천천히 크게 돌린다.
복근 운동 : 팔 · 다리를 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면서 윗몸을 동시에 천천히 일으킨다.
등 구르기 : 무릎을 접어 배에 붙이고 발목은 양 팔로 깍지 껴 잡고 뒤로 구른다.
다리 벌리기 : 양발을 양 손으로 잡고 무릎은 바닥에 붙인 채 앉아 뒤로 구르면서 발을 잡은 손으로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린다.
손발머리 당기기 : 합장하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를 뻗은 채 누워 머리를 들면서 손은 가슴에 합장한 채 당기고 발바닥은 땅에 붙인 채 무릎을 구부려 끌어당긴다.
팔다리 흔들기 : 누운 채 발과 다리를 거의 직각이 되게 위로 들어 편하게 흔든다.
손 짚고 발 뻗기 : 무릎을 세우고 앉아 양팔로 무게를 지탱하고 발을 대각선으로 뻗는다.
척추 펴주기 : 요가에서의 고양이 자세 참조. 앉은 채 허리를 젖혀 하늘을 본다.
몸통 들어 돌리기 : 다리를 벌려 선 채로 양 팔을 양쪽으로 뻗어 허리를 크게 돌려준다. 한 쪽에 10회씩 마지막에는 온 몸을 돌린다.
다리운동 : 뒤꿈치를 들고 일어나 합장. 팔을 45도로 벌리면서 앉았다 일어나며 합장.

선무도 수련할 수 있는 곳

지역		원장	연락처
서울	종로	김무겸	(02)763-2980
	서초	문병진	(02)581-6521
	방배	곽정옥	(02)599-5554
경기	인천	이학성	(032)541-6301
	안산	이경분	(031)475-2600
경상	골굴사	종무소	(054)744-1689
	포항	장진석	(054)818-0166
	울산	정륜 법사	(052)276-6271
	양산	단공 스님	(055)382-5074
부산	중앙동	박은하	(051)464-1380
	서면	임옥임	(051)818-0166
	금정	최상권	(051)515-8323
대구	대구	철안	(053)525-0718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성신여대 운정관에서는
9월 8일 오전 11시부터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라는 테마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동극을 무료공연한다. 주 대상은 아동을 자녀로 둔 3~40대 주부로 미니 강연과 아동극을 차례로 볼 수 있다. (02)969-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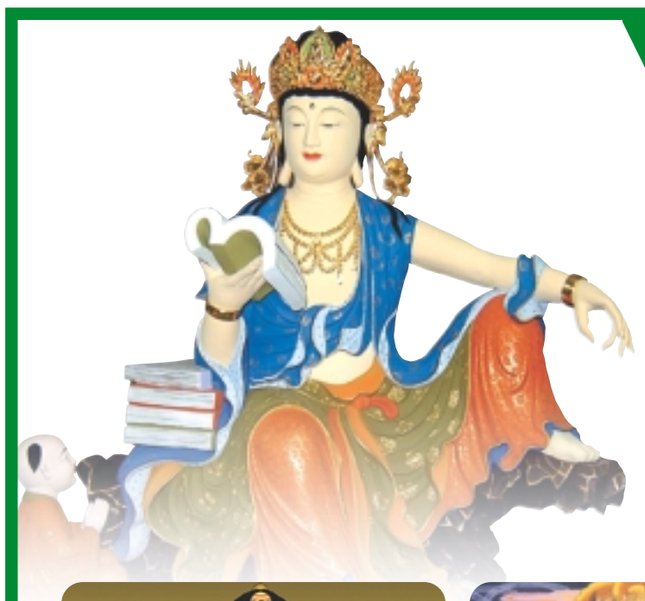
청주 예술의전당에서는
한국 전통춤의 명인들이 청주시립무용단과 함께 시립무용단 제23회 정기공연으로 '이 시대의 명무전 국향(國香)'을 펼친다. 공연은 9월 6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며 이 시대 춤의 명인 김운태, 김덕명, 하용부 등이 출연한다. (042)279-4696

천안시청 봉서홀에서는
배우 이영하가 들려주는 고흑적인 발레이야기가 9월 8일 찾아간다. 국내 최정상 국립발레단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해설과 함께 해 이해가 더욱 쉽다. 홈페이지(cahall.cheonan.go.kr)에서 예매가능. (041)521-2851~2

화순군 다산미술관 전시장에서는
9월 24일까지 '다산마을 흥부네 박 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박 요리를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흥부놀부전 체험과 함께 초중고생들이 박의 생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관도 열어놓고 있다. 또한 판소리와 박 공예품 전시회도 즐길 수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무더위는 입맛도 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저 시원한 것만 찾게 되니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체력보강을 위해 미꾸라지를 잡아다 풋고추, 깻잎, 부추 등을 듬뿍 넣고 추어탕을 끓여주셨지요. 한소끔 땀을 흘리며 먹고 나면 주전부리 필요 없이 여름이 갔지요.

주전부리 :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군음식을 자꾸 먹음. 또는 그런 입버릇. (주전부리나 김밥 행상도 일정한 구역이 있어서 텃세 때문에 아이들이 깨지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황석영<어둠의 자식들>)

한소끔 : 1.국 따위가 한 번 거품 지어 끓어오르는 모양. 밥이 한소끔 끓다. 2.어떤 일이 한판 되게 벌어지는 모양. (점심때가 지나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면 초저녁은 한소끔 되게 앓고는 식은땀을 베개가 펑하니 좔좔 흘리곤 하였다.)(염상섭<취우>)

섞박지 : 배추와 무, 오이를 절여 넓적하게 썬 다음, 여러 가지 고명에 젓국을 쳐서 한데 버무려 담은 뒤 조기젖 국물을 약간 부어서 익힌 김치. (하얀 쌀밥에 명탯국 담긴 반병두리며 섞박지 섞인 김장 김치에 동치미 서껀 몇 가지 산나물에 곤쟁이젓 찌개와 자반비웃까지 한 토막 놓여 있었으나, 한 저녁 치고는 진수성찬이었다.)(김성동<국수>)

부꾸미 : 찹쌀가루 · 밀가루 · 수숫가루 등을 반죽하여 번철에 지진 떡.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추악한 현실 속 무너져 가는 인간 존엄성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인 作 '감자'

이 소설은 1920년대 식민지 사회를 배경으로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에서 주인공 복녀가 자신의 환경에 의해 어떻게 타락해가다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지 살펴보면서 읽어나가길 바래요. 이 소설을 읽다보면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의 <실험 소설론>(1880)에서 비롯된 자연주의 소설 이론의 핵심 요소인 환경결정론이 떠올라요.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단편 소설이요, 자연주의 소설로 하층민의 언어를 사용래 사실적이며 장면 중심의 사건 전개로 묘사적이죠.

작품의 인물을 살펴보면 복녀는 가난하지만 도덕적 기품을 가진 정직한 농가의 여인이지요. 자신을 둘러싼 가난한 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타락하고 파멸해 가는 동적 인물이지요.

남편은 천성이 게으르고 무능하며 도덕성을 상실한 파렴치한 인물이에요. 왕 서방은 중국인 지주로 돈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배금주의자이며 호색한이죠.

복녀는 몰락한 선비후예로 유교적 가율로 자란 정직한 여인이었으나 무능하고 게으른 남편 때문에 날로 가난하게 된다. 복녀는 결국 악의 소굴인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로 남편과 함께 쫓겨나 살게 된다. 복녀가 빈민굴의 거지 행각을 하며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을 때, 당국에서 빈민구제 겸 솔밭의 송충이 잡는 일을 실시했다. 품팔이 나간 복녀는 어느 날 송충이 잡는 일의 감독관에게 몸을 팔고 많은 일당을 받는다. 이후 복녀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도덕적 타락에 빠져 거지들을 상대로도 매음한다. 가을에 왕서방네 밭에서 감자(고구마의 이북 방언)를 훔치러 갔다가 들키자 복녀는 왕서방에게 몸을 맡기게 된다. 왕서방은 수시로 복녀를 돈으로 산다. 남편도 관계를 묵인하여 왕서방의 정부로까지 전락하고 만다. 그런 와중에 왕서방이 어떤 처녀를 사서 혼인하자 복녀는 심한 질투심을 느낀다. 왕서방이 새장가 든 결혼식 날 밤, 복녀는 낫을 품고 신혼 방에 들어가 싸움을 벌이다 오히려 왕서방에게 낫을 빼앗기고 복녀는 낫에 찔려 살해된다. 복녀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자 왕서방은 복녀의 시체를 두고 남편과 한의사를 돈으로 매수한다. 복녀의 죽음은 뇌일혈로 처리되어지고 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녀를 공동묘지에 매장한다.

'감자'는 성적 착취 · 지배 상징 장면 마다 독특한 표현법 눈길

'감자'는 1925년 <조선문단> 4호에 발표되었지요. '감자'란 제목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감자의 우의적 개념은 우리 농촌 사회의 궁핍과 도덕적 타락을 상징한 것이겠지요. 인간과 감자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주인공 복녀를 매개로 하여 보여준 것이지요. 또한 남성 세계의 성적 지배와 착취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된 작품이지요. 감자라는 작품은 긍정적인 현실보다는 부정적인 현실의 추악한 면을 들추어내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는 국면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답니다.

복녀가 거듭되는 가난에 따른 매춘 행위(사회적 요인)와 애욕의 질투(개인적 요인) 때문에 왕서방에 의해 비극적 죽음을 맞는 것은 이미 평양의 칠성문 밖 빈민굴,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부재하는 곳, 도둑질, 싸움, 살인, 간통, 매음 등 이 세상의 비극과 악의 근원지로 부정적 환경에서 예정된 운명이 아닐까요? 복녀의 죽음을 놓고 비정한 뒷거래를 하는 남편, 왕서방, 한의사 세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안도 사투리와 하층 사회의 비속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장면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독특한 표현법도 눈여겨보며 읽어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언니가 너무 부럽고 미워요.

저희 언니는 친구도 많고 말도 잘하는 편이라 인기가 아주 많아요. 전 내성적인 편이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언니와 비교가 되고 저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언니랑 같이 있는 것이 자꾸 싫어져요. (ID:비교거부)

필요하다면 성격 계발해 보세요

언니와 성격이 다를 수 있지요. 저도 저희 형제들과 얼마나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 반대면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언니의 성격은 다 좋아 보이고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그렇답니다. 언니의 좋은 성격을 닮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언니에게 털어 놓지도 못해서 어렵지요?
청소년기에 가장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성격 문제입니다. 불만으로 여기는 사항들이 대부분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말을 잘 못하거나 가족들과도 말을 안 하고, 말하고 싶어도 막상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성격이란 개인이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지각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태어나서 약 5 · 6세가 되면 거의 완성이 되고 그 후 삶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나 사고 및 심각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바뀌어 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향적인 성격은 더 긍정적인 내향적 성격으로 계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향성이나 외향성 모두 각자의 모양과 맛, 빛깔이 있기에 좋다, 나쁘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독특성을 더욱 더 계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중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계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실)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대한불교 조계종 만인회 약수사 만탑 불사 모연문

탑이란 누겁다생으로 갈고 닦아 이룬 소원성취의 결정체이며 옛부터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원성취 만탑불사에 신남신녀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앙망하옵니다.

일체중생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만탑불사는 역사이래 보기드문 대작 불사이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라니 기도를 매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국내최초, 최다 만탑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대대로 무량대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

◆ 동 참 금 : 1인 1탑 30만원(10회 분할가능)
◆ 구좌번호 : 농 협 525-01-176510 (예금주 : 약수사)
우체국 400051-01-007539 (예금주 : 조계종만인회)

◈ 만인회 회원도 모집합니다. (월회비 1만원)
◈ 회원 가입시 각종 혜택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시 만인회 책자 무료우송

◆ 동참문의 : 063)625-6831/010-9115-6831

약사여래기도도량
지리산 약수암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번지
※약수사 참배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 – 10권:105,000원(30%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가귀감 9월 서울 법회는
9월 2일(日)열립니다.
추석으로 인해 광주, 부산 법문은 1주일씩 당깁니다.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오전 11시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9월 9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9월 16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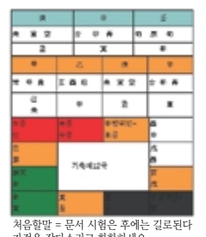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함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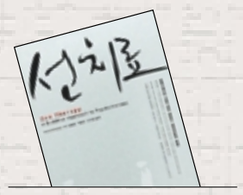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 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62-969 (예금주 : 박옥자)

불교에서 '심리치료의 해법'을 찾다



선치료
브래지어 지음
김용환·박종래·한기연 옮김
학지사 펴냄 | 1만7000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생각이 있으면 존재하고 생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터이다. 붓다는 '존재가 허공이며, 허공이 존재다'라고 한다. 생각있음과 생각없음은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다. 인간의 온갖 심리적인 문제, 괴로움은 생각, 관념 등에 대한 태도에서 연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데카르트적 입장은 서양적 사유의 밑바탕이며 서양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담과 심리치료 이론들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있음인 채로 없음이고 없음인 채로 있음인 이 역설처럼 보이는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와 고통, 그리고 그 해결에 어떤 빛을 던질 것인가?

전문가 서평

윤호균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불교를 심리치료의 심리학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심리치료인 것인가?' 선 치료의 저자 브래지어가 갖고 있던 이 의문은 비단 그만의 의문이 아니라 심리치료와 불교 모두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문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정신치료학회나 불교심리치료학회가 결성된 모티브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와 심리치료라는 상이한 전통의 사유를 통합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브래지어는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었다. 그는 심리상담자이면서 동시에 수행단체를 이끌고 있는 영국의 심리학자로서 그의 상담경험과 수행경험을 토대로 상담 및 치료와 불교의 가르침을 연결, 통합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온갖 심리적인 괴로움의 원인을 '마음의 조건화 작용' 즉 연기에서 찾고 있다. 조건 지어진 존재를 자기라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조건 지어진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실체가 아니므로 거기에 매달리는 한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윤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고향을 떠나 떠도는 나그네, 자연의 품을 떠난 인위적 존재인 우리의 귀향, 자연의 품으로의 회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브래지어에 의하면, 우리들의 고통, 괴로움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고향, 자연,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마음의 조건화 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연의 마음자리로 돌아가 그 마음자리에서 순수하게 인연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 또는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치료자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내담자가 그의 온갖 괴로움, 갈등, 비밀 등을 거리낌 없이 터 놓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브래지어는 이 빈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본주의 상담의 대표인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들과 보살의 마음을 연결 짓는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공감은 관음과 법장보살의 자비를 닮아야 내담자의 분노를 치유할 수 있고,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은 보현과 미륵보살의 사랑을 닮을 때 내담자의 탐욕을 치유할 수 있고, 상담자의 진실성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닮음으로써 내담자가 망상과 집착을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비, 사랑, 지혜의 공간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 욕망 등이 마음의 조건화 작용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그의 고향인 원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므로서 문제와 괴로움의 환영(幻影)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위빠사나 명상의 치료적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동양의 상담자, 치료자에게 고무적인 일이지만 선 불교의 정신을 상담 및 치료와 연결, 통합한 브래지어의 업적은 또 다른 반가움이다. 단지 아쉬움을 지적한다면, 마음의 조건화 작용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조건화 작용을 어떻게 놓게 되는지 그리고 사랑, 자비, 지혜가 각각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대한 처방처럼 제시되는 것이 텅빔(空)의 진정한 의미에 합당한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저자의 참신한 발상은 그가 인용한 바 있는 이동식, 정창용을 위시한 한국정신치료학회원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에서 크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국내의 상담자와 치료자가 저술한 보다 알차고 훌륭한 책이 나와서 브래지어는 물론 세계 도처의 치료자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길 고대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마음혁명'



마음혁명
김형효 지음
살림 펴냄 | 1만5000원

"악(惡)이란 윤명적으로 선(善)이라는 가치의 이면에 깃들어 있는 선의 배설물과도 같다…악은 선으로 청소될 수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내가 악을 미워하여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나의 결심은 이미 악을 동반하게 된다. 악을 미워하여 그와 대결하겠다는 그 선행의 마음에 이미 독선이란 악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정년퇴직한 철학자 김형효 명예교수는 그런 사례로 십자군전쟁과 스탈린 독재, 홍위병의 폭력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선악의 문제는 물론이고 자유와 평등, 이기주의와 도덕주의 등의 대립이나 분열, 나아가 그 통합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마음혁명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세상은 소유적 욕망이 그려낸 사이버스페이스이므로 "세상을 혁명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혁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학은 언제나 실용적이었고 그 자체가 오직 '쓰임'으로써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한 교수는 그런 사례 52가지를 중심으로 엮은 이번 철학에세이에서 본성과 본능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본능은 생존을 위한 소유욕이지만, 본성은 자기의 특성을 그냥 꽃피우고 성취하고픈 욕망이다."

이 책은 김 교수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세상, 특히 대중과의 소통을 꾀하는 책이다. 그런 만큼 책에 에세이 형식으로 펼쳐진 다양한 주제는 동서고금의 철학과 우리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물이면서도 읽기에 어렵지 않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3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5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지현	조계종출판사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10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톱텐 초드론	미디어 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불교에 관한 모든 것 한눈에



가산불교대사전 권9
지관 편저
가산불교문화원 펴냄 | 15만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글로 된 국내 최대의 불교종합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제 9권을 최근 발간했다. 지난해 8권에 이어 1년여 만에 선보인〈가산불교대사림〉 제 9권은 1130페이지 분량으로 범종루 부터 보살계도량까지 'ㅂ' 관련 표제어 5000여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학 용어뿐 아니라 불교관련 인명 · 사찰 · 사지 · 문화재 · 역사적 사건까지 불교 관련 술어를 두루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불교대백과사전으로, 1999년 1 · 2권이 나온 이래 매년 1~2권씩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본책 15권을 비롯해 총 18권으로 편찬 예정인 <가산불교대사림>에는 15만여 표제어가 실리게 된다. (02)765-9602

김주일 기자

포교 활성화 전략 지침서



포교이해론
포겨연구실 엮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갈수록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포교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포교이해론>은 포교가 무엇이며,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대 포교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포교를 연령별(어린이, 청소년 등), 특수계층별(군장병, 경찰 등), 직장직능별로 나눠 필요성을 제시한 점은 포교일선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꼭꼭 씹어 포교 전략으로 삼을 만하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씨는 "사찰이 성장하려면 법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책에서는 법회 의식 전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법회 운영의 효율적 방안과 실용적 지침도 제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숨결' 담은 설법집



부처, 몸소 말하다
이상규 편저
학고재 펴냄 | 1만8000원

아함(阿含)은 '전해 오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어인 '아가마(agama)'를 한역(漢譯)한 것이며, <아함경>은 구송 형식으로 전해오던 부처의 가르침을 부처의 사후 100년경 문자화한 것이다.

'아함경(阿含經) 새겨보기' 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기원전 6세기경 만들어진 경전으로 부처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행적과 사상을 담은 <아함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간추려 놓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함경>에서 붓다가 제자의 특성에 맞춰 난이도를 달리해 묻고 답한 것처럼 일반 독자들도 새겨보기 쉽도록 경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성제, 연기론 등 불교의 핵심 교리와 계율, 수행법 등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모아 주석과 해설을 단 점이다. 김주일 기자





인프라·인재양성·시장개척이 관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열어

"불교음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미디어국 설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불교문학과 출판 발전을 위해서도 종단 차원의 불교문예상 시상 제도를 만들고 사찰 도서관 건립, 불서읽기 캠페인 전개 등에 힘써야 한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연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문화부는 불교문화를 음악, 미술, 공연, 문학 및 출판 등 4개로 나눠 각계 전문가를 초청,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조계종 문화부 주최로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사진은 23일 열린 문학출판분야 간담회.

찬불가, 찬송가 등에 영향 받아…지침서 마련 시급
대중화 코드에 맞는 곡·스타 가수 발굴 서둘러야

양질의 출판물 위해 발간비 지원 제도 등 마련 절실
사찰 마다 도서관 건립 '불서 읽기 캠페인' 벌여야

■ 불교음악분야

△채치성(국악방송 본부장)

법회의식에 사용되는 음악과 대중포교 음악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 현재 우리 불교의 의식곡들중에는 찬송가와 일본 노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종단 차원에서 창작 찬불가를 작사 작곡할때에는 모범지침안을 마련해 일정 형식을 제대로 갖춘 찬불가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으면 한다.

△ 박성규(제니스 불교음악원 원장)

불음포교 현장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이다. 오페라를 한 작품 하려고 하면 출연자중 불자 전공인들을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어쩐때에는 타종교 음악인들을 불가피하게 섭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정식화된 문화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종만(좋은 벗 풍경소리 실장)

현재 발표된 찬불가는 1500여 곡으로 추정된다. 찬불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로 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적인 코드에 부합하는 찬불가 및 찬불가수 스타를 발굴해 대중 앞에 선보이게 하는 것이 대중화의 지름길인 것 같다. 이외에도 인재양성과 교육, 문화포교 등을 위한 미디어국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임재필(목포대 음대 강사)

재능 있는 불교 음악인을 지원·육성하는 창작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불교음악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또한 가곡의 밤과 같은 행사를 개최해 일반 곡들과 불교적인 곡들을 함께 연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음악단체(합창단, 실내악단, 오케스트라 등)를 만들어 육성해 나가야 한다.

■ 문학출판분야

△장영우(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불교문예대상제도' '불교설화 등 콘텐츠 공모전' '불교독서감상문 공모' '불교성지순례기행문 공모' '템플스테이 체험수기 공모' 등 종단 차원에서 작은 규모라도 좋은 작품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각 문화장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문학의 중흥은 자본의 투자와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한 장르다.

△공광규(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불교문학을 통한 대중 포교의 대표적 단체인 현대불교문인협회에 대한 종단의 적절한 지원 확대와 인정을 통해 불교문인을 양성화 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출판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양질의 불교출판 원고 공모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발간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윤창화(민족사 대표)

불교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찰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사찰에 도서관이 있는 곳은 잠실 불광사, 합천 해인사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굳이 출판 발전이 아니더라도 지역포교는 물론 신도교육 차원에서도 사찰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은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불자 가정마다 108권 불서 읽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또한 개인과 소수 단체의 힘이 모자르면 인프라를 구축해 대형 불교서점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외에도 불교출판상 제정과 각 사찰의 불서판매 공간 확대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류지호(불광출판사 주간)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출판사들의 연구 및 논의 방안이 마련되는 장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한 공동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한다. 갈수록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의 매출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점은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일반인들이 불교출판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공동행사의 기획 및 기존 행사들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나 각 사찰의 창건 기념행사와도 결합해 출판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걸어가는 부처님?

'라오스 불상 특별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9월 29일까지



삼존불 입상.

라오스 불상들 중 하나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원서동 박물관 제 4전시실에서 '불교의 나라 라오스 불상 특별전'을 개최한다. 주요 전시작품은 걸어가는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목조불입상(木造佛立像) 등 50여 점의 불상이다.

걸어가는 모습의 부처상은 태국의 스코타이 양식 불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라오스 불교예술이 태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로 16~18세기에 조각된 라오스의 불교미술품은 여러 차례에 걸친 타이의 침입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동시에 타이의 아유타야와 스코타이 왕조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는 계기가 됐다.

동으로 만든 부처 좌상은 정수리 위에 상투를 튼 것 같은 기둥이 붙어있다. 이 부분을 계주라고 하는데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불상의 계주는 기둥형태로 뾰족하게 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불상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무른 재질의 사암, 흙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조각수법도 단순하다. 그러나 이 불상들은 각 지방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의 얼굴 등 생김새가 천차만별인 것이 흥미롭다.

매주 금·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전시설명이 있다. 한편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9·10월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홀쭉, 넙죽, 나만의 부처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766-6000

김주일 기자

몽골·티베트 인쇄문화 한눈에
원주 명주사에서 9월 16일까지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9월 16일까지 티베트·몽골 고판화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판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티베트와 몽골 관련 고판화 700여점중 150여점을 선별해 벽에 건다. 그중에는 불교 탕카와 타르초, 부적을 찍었던 원판 목판 50여점과 그 원판으로 인출한 판화 30여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이번 특별전에서는 몽골 인쇄문화와 삽화판화를 엿볼 수 있는 티베트·몽골 고판본 서책들도 10여점 선보인다. 특히 몽골 지옥변상도 판화본은 200여장의 지옥세계가 파노라마로 전개되는 환타지 문학 삽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033)761-7885

김주일 기자



"보컬과 음악적으로 하나된 느낌"
불자 가수 웅산 세번째 앨범 '예스터데이' 발매

"21세기 재즈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걸 새 앨범에 담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재즈 중에서도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목소리의 어쿠스틱한 노래들이 많지요."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농염한 허스키보이스, 활화산 같은 열정을 발산해온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34)이 1년 6개월만에 3번째 앨범 '예스터데이'를 내놨다. 블루스적 색채가 강한 '더 블루스'로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표현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팝, 발라드, 블루스, 포크 등 다양한 음악적 오브제를 풀어냈다. 웅산은 이번 앨범에서 13곡 가운데 7곡을 자작곡했다.

"'예스터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다 지쳐 놓아주는 슬픈 꿈 내용이에요. 그날 아침 피아노에 앉아서 덤덤하게 풀어간 곡이죠. 15분 만에 만든 곡이에요. 그 전에는 재즈나 블루스 등 어떤 장르에 묶여 노래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곡의 느낌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노래했지요. 변신은 항상 흥미롭잖아요."

웅산은 "이번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보컬과 음악적인 면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웅산(雄山)은 18세에 비구니가 되겠다고 들어간 충북 단양 구인사의 무안스님이 지어준 법명. 2년간 절에 머물다, 음악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에 하산했다.

웅산은 9월 1일 오후 8시 30분부터 대학로 천년동안도에서 콘서트를 연다.(02)743-5555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⑳

설악산 봉정암

장인성 시인

산 위에 구름 겹겹 휘둘러 있고
구름 위에 절집 한 채 다소곳해서
여기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비구니스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까마득한 바다를 가리키면서
저기가 해인(海印)이라 일러줍디다.



봉정암(鳳頂庵)-해발 1,244미터의 내설악 정상에 자리한 적멸보궁으로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암자.
그림 : 이상배 화백

여래심지요문릉가경

如來 心地要門 楞伽經 강의 안내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1기-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져 禪敎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본 선교연구모임에서는 금번 선종의 중국 초조인 달마대사께서 2조 혜가대사께 心印을 전해줄 적에 함께 전수한 능가경 4권을 총정리한 당나라 화엄종주 현수 법장스님께서 능가현의 깊은 뜻을 밝힌 경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강백이신 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시간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실 강당
◆ 수 강 료 : 6개월 25만원
◆ 자 격 :
(가) 비구, 비구니 - 법납 15년 이상,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함.
(나) 재가자 -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출가자 - 수행이력서 1통, 반명함사진 2매
재가자 - 이력서,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2매, 신도증 사본 1매
◆ 접수기간 : **2007년 7월 13일 - 9월 7일까지**
◆ 입 금 처 : 국민은행 429102-04-031256 예금주 최재동
◆ 문의 및 접수처 : 02)735-1053 / 핸드폰 018-242-7070, 011-497-8018
◆ 서류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敎연구모임 운영위원장 법경 합장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금 강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대승기신론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 모집인원 : 약간명
◆ 학 기 : 2학기
◆ 개강일시 :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면목역, 상봉역)
◆ 전 화 : 02)496-3952~3

<무료 명상치료 안내>
중풍을 제외한 모든질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5.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네(1)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斫來無影樹
물 가운데 거품을 태워 다 할지니라
燋盡水中漚
가히 우습다 소 탄 자여
可笑騎牛者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騎牛更覓牛

오늘날까지 당상의 대중법문으로 많이 회자되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는 선화는 필자 역시, 오랫동안 무딘 머리를 괴롭혀 왔던 공안이었다. 이 선화로 대중법문하신 전강선사(田岡永信, 1988~1974)의 법문을 옮긴다.

소요(逍遙)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비하여 성동이라고 고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 13세에 출가하여 부휴대사 밑에서 일대시교를 통달하고 수 백 명의 학인 가운데 운곡(雲谷), 송월(松月) 스님과 더불어 법문삼걸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17세의 소년 강사 소요 스님이 묘향산에 계신 서산대사를 찾아갔다. 그날부터 시봉을 시키면서 <능엄경> 한 토막씩을 매일 가르쳐 주셨다. 매일 배우다보니 삼년이 다 지나갔다. 소요 스님이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서산대사는 웬일인지 때 묻은 작은 책을 보시다가는 곧 안주머니에 넣곤 했다. 소요 스님은 그 작은 책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았다.

하루는 서산대사가 잠자는 틈을 타서 그 작은 책을 보려고 하니 서산대사는 깜짝 놀라 깨어나서 그 책을 더욱 소중히 감추는 것이다. 그 작은 책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단속이 심하고 또 아무런 법도 얻지 못하였으니, 더욱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소요 스님은 서산대사에게 하직을 고하니 그때야 비로소 서산대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그 작은 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려고 하거든 이 책이나 가지고 가게" 하셨다. 서산대사가 주신 책을 펴보니 게송이 있는데, 바로 이 게송이 쓰여 있었다.

이 게송을 가지고 20년간을 참구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나이 40에 다시 묘향산에 돌아가서 서산대사를 뵈오니 감개가 무량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20년간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스승이 아니었던가.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어떻게 되었느냐?" "떠날 때 주신 게송의 의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산대사께서 "가히 우습다 소 탄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하시는 바람에 소요 스님은 언하에 확철대오 하였다.

(전강선사법어집 <언하대오>25~28)

전강선사 '소 타고 소를 찾는구나' 선화로 대중법문
20년만에 만난 서산대사 언하에 소요 스님 확철대오

소요 태능(逍遙太能,1562~1649)의 시 역시 당대의 많은 명사들로부터 선과 시가 빼어났다고 칭송을 받았다.

잎 지자 일천 산 조용하고
葉脫千峰靜
달뜨니 온갖 골짝 빼어나다
月臨萬壑奇
산가의 말 끊긴, 이 현묘함
山家絶言妙
바깥사람 알지 못하게 하시오
勿使外人知 – 소요 태능

위의 게송 1행과 2행 "잎 지자 일천 산, 조용하고/달뜨니 온갖 골짝 빼어나다"는 선리적인 입장에서는 쌍차쌍조(雙遮雙照)의 화엄도리를 겸겸이 드러내고 있다.

1행에서 '잎이 지다'는 '막다 빼앗다의 차(遮)'의 표현이고, '조용하다'의 정(靜)은 '되비침, 조(照)'의 표현이다. 곧 '일천 산'이 있는 그대로 석가의 샛별처럼 드러난다. 그리고 2행에서 '달뜨다'는 조(照)의 이치이니, 곧 되비치니 '만학이 갑자기' 그 자태를 여시하게 드러낸다.

곧 선시의 모순적 어법 가운데 선시의 반상합도(反常合道)의 수사법이다.

3행과 4행 "산가의 말 끊긴, 이 현묘함/바깥사람 알지 못하게 하시오" 3행에서 보이는 '산가(山家)'는 숨어버리고, 도리는 들어나 묘(妙)로 표현되었으니 우리를 다시 한 번 뒹굴게 한다. 4행은 반어적 수사법인 아이러니다. 선사는 발가벗고 중요한 것을 만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

깨친 자에게는 담담함이 있다.

착어 : 별무기특이라, 하늘 별들아 아직 무사한가. 오늘도 어둠을 갉아 먹는 너 정말 기특하구나.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⑮대추구기자차

여성 냉증 치료·수험생 긴장완화에 도움
불로장수식품으로 꼽힐만큼 효능 다양

비타민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약재의 성분을 완충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과일보다는 약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대추.

토실토실 알이 꽉 차오른 가을 대추는 특히 각종 여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 잘 재워뒀다가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약이 되는 대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추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는 병에는 대추가 좋은 약이 됩니다. 대추의 신경완화 작용은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가라앉히므로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또한 대추는 비위(비장과 위장, 즉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 내장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을 앓는 사람과 체질상 소음인에게 적합합니다. 호흡기 질환에도 좋아 감기 예방을 위해 대추를 많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대추씨에는 신경을 이완시켜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 셈이지요. 대추 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삶아서 먹거나, 가루를 내어 물에 타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으로 예로부터 냉증 치료에 이용됐습니다. 말린 대추를 달여 먹으면 몸이 훈훈해질 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부도 윤택해집니다. 냉이 많을 경우 한방에서는 물 반통에 구절초 반 단과 대추 한 홉을 넣고 물이 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끓여 하루 세 번 1컵씩 마시거나 뒷물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사찰음식은 '대추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는 '자신보간명목(滋腎補肝明目)'이라고 해서 간신을 자양하고 보하여 눈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갈증을 그치게 하므로 소갈증(당뇨)에도 좋습니다. 여름더위를 견디거나 여름을 지나면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으면 좋은 대추구기자차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추구기자차

재료: 대추, 구기자, 감초, 꿀

만드는 법

① 대추 3:구기자 1:감초 1/20 비율로 재료를 준비한다. 재료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넉넉히 붓고 센 불로 한소끔 끓인 다음 약한 불로 서서히 졸인다.

② 졸인 물이 커피색으로 우러나오면 대추를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쉽게 들어가면 꿀을 넣고 단맛을 만든다.

③ 꿀이 어우러지도록 한 번 더 끓인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며 차게 먹을 수 있고 데워서 뜨겁게도 먹는다. 대추와 구기자는 입안에 넣고 터뜨려서 꼭꼭 씹어 먹고 입안에 남는 껍질만 뱉어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⑮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고두현| 랜덤하우스중앙, 2005| 6천원





불교·진리 '그리움의 대상'으로 형상화

고두현은 1963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하고 첫 시집 <늦게 온 소포>와 두 번째 시집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를 냈다. 추상적 인식과 진리를 '당신'이나 '너'로 은유하여 대상화하는 그리움이 가득한 그의 시집에는 불교 제재 시들이 여러 편 보인다. 이를 테면 '별에게 묻다'에서는 "남해금산 보리암/ 절벽에 빗금 치며 꽂히는 별빛/ 좌선대 등뼈 끝으로/ 새까만 숯막 타고 또 타서/ 생애 단 한번 피고 지는/ 대꽃 틔울 때까지// 너를 기다리며/ 그립다 그립다"며 대상인 '너'에 대한 아름답고 강렬한 그리움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마음의 액자'에서는 "눈에 멀수록 더 가깝고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느 날 문득 내게로 오는 것이/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유리 거울이라면/ 끊임없이 가 닿기 위해 / 나를 벗고 비우는 일이/ 원근보다 더 애달픈 사랑이라는 걸/ 마음속의 액자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오늘"이라고 한다. 아래 인용한 '부석사의 봄밤'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인 '당신'이 누구인지 구체적로 알 수 있게 형상화했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
가만히 손 대고 눈 감다가
일천이백 년 전 석등이
저 혼자 타오르는 모습 보았습니다.

하필 여기까지 와서
실날같은 빛 한줄기
약간 비켜선 채
제 몸 사르는 것이

그토록 오래 불씨 보듬고
바위 속 비추던 석등
잎 다 떨구고 래궁만 남은
당신의 자세였다니요. – '부석사의 봄밤' 전문

여기서 석등으로 은유된 '당신'은 부처나 진리라는 것을 확연히 알아차릴 수 있다. 창작자는 봄날 부석사 여행에서 만난 석등을 통해 부처의 진리가 사찰 창건 당시 전등(傳燈)되어 타오르는 것을 회상하고, 바위 속에 오랜 불씨를 보듬고 불법을 전등하고 있는 석등을 부처의 진리와 비유하고 있다.

'지평선 가까이 있는 달이 커 보인다?'에서는 사물이 크거나 작게 보이는 것은 거리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면서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만큼의 거리를 알고 나면/ 비로소 참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낙산 일몰'에서는 일몰의 반복과 집적을 통해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상상하고, '반신-오층석탑, 동쪽'에서는 석탑이 "깊은/ 산그늘// 혼자 밝히려고" 제 몸을 깎아서 뼈를 쌓았다고 한다.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호수에 거꾸로 비추고 서 있는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팔만대장경이 따뜻하게 익고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아래 인용한 시는 사투리를 섞은 구어체와 "건강비결?/ 평생 놀았지"리며 기대 배반을 통해 재미를 준다.

개심사 입구 세심동에
어린 할아버지 한 분.
지난 팔월에 팔순잔치 혔체
여그서 한 십 년
취나물이며 은행 말린 거며
커피 사발면 갈은 거.
대처에 나간 적 없어
할멈은 일흔 다섯, 살림하지
건강 비결?
평생 놀았지 센 일 안 했어
한량이여

아 취나물 안 살 겨? – '개심사에서' 전문

"장뇌산삼재배" 새로운 임야재테크
국내 최대 장뇌산삼 재배단지인 "장생고려산삼영농조합"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고소득 특화품목"
우수종자·종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종자·종묘의 보급



■ 장생은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 원주본사 농장견학 및 자체교육실시
• 원주본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 파종된 인근지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전국 45개 시·군)


장생산삼농장 장뇌산삼

■ 신뢰할 수 있는 장생


원주연구소및 박물관 시험성적서 발아율보증서

• 농장규모 및 연혁 : 원주 제1농장, 포천 제2농장을 포함하여 총5개의 농장에 20여년간의 재배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뇌산삼을 재배하고 있는 국내최대규모의 영농조합 • 발아율보증서 발급 • 시험성적서 발급

■ 장생의 3대 추진사항
1 우수종자·종묘의 보급
2 행정절차의 지원
3 재배기술의 지원 및 교육

■ "장뇌삼"(산양삼)
• 산림청 특화품목으로 선정
• 농가에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집중육성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법인
장생산삼연구소 장생산삼박물관
365일 공휴일에도 농장견학 및 상담해 드립니다. www.kginseng.co.kr

매일 오전10시, 오후2시 자체교육실시 가을파종 예약 접수 중 상담 및 문의: 033)747-7637~8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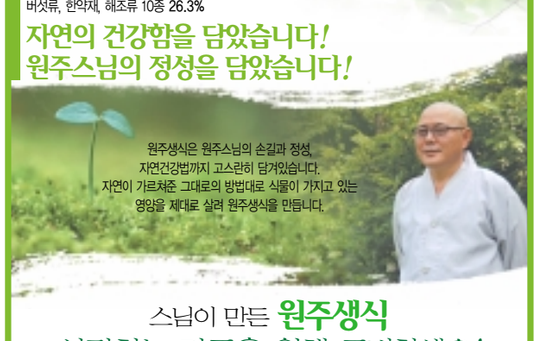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원주된장(2kg): 20,000원
▶원주고추장(2kg): 25,000원

무상사 현진암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소비자상담실 (053)986-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4~6,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516-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천도재,구병시식,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만들어서 그을음이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지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우리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 않으며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시는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영가옷 입니다
※치수는 일반영가옷과 동일합니다
※주문즉시 택배로 발송합니다
054)972-9933
017-503-3503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메모하세요~)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세계최면치유연구소
부산,경남,전국 최고!!
전생체험, 빙의제거!
실습위주의 최면전수
저서 : 최면치유법
051)803-7208
www.choimyun.com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천도재 · 49재
구병시식 · 조상객사
교통사고 · 낙태 유산
영가천도 영험도량
051)781-0089
011-9542-1301

명리학 · 사주 · 역학 배우실 분
철학원, 포교원, 암자 운영할 분
스님, 무속인, 일반 출퇴근,
숙식가능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발급
031)511-7183

의통이 열려 원인 모를 병,
두통,위장병,피부병,디스크,
정신병,불면증,히스테리 등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50세 처사입니다
활인구제가 필요하신 사찰이나
같이 동업하실 인연있는
보살님 기다립니다
017-566-722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가족 처럼
지낼실 분,
숙식 가능 하신 분,
▷위치 : 고성읍
055)241-2323

평생을 서로의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45세 이하로 원함,
비구니 사찰임. 출가를
원하는 행자도 가능
▷경북 함창
011-810-9957

공양주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강원도
011-515-5843

종무소 여직원
구합니다(30~40세)
부전(비구)스님
모십니다
042)272-1223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041)673-233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울산
052)275-0829

조계종 고려고찰임
소백산 내원암 지장보궁
번거롭지 아니하고 조용한
기도처에서 자기기도 하면서
법당을 관리할 보살님과
40-50대의 공양주구함
▷경북 소백한 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서울
02)931-5009
010-9335-2537

신심있는 불교신도로서
장래성있는 사업에
2억원정도 투자하실 수 있는
동업자를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성원사
016-640-8133

도반을 같이 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전후)
055)883-8846

천년고찰
신심있는
처사님 모십니다
054)533-3474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비구스님 40세 미만
010-5500-1836

운영이 안되는
포교당이나
사찰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경남북 지역 원함
(50대 비구승)
010-5573-363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하)
▷서울, 경기지역
010-2006-00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447-112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제공) ▷김해
010-4529-4402
055)336-2328

기도스님 모십니다
행자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7-736-7863

평생 함께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011-488-0930

공양주 보살 구함
절에서 심부름할 행자 구함
장차 스님이 되어 중생을
제도할 행자도 구함
(부산지역)
011-840-4355
051)334-3009

공양주 보살 1명(50대)
사무 보살 1명(30~40대)
구합니다
▷대구지역
011-576-27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
054)535-0005

함께 기도수행하실
스님모십니다
(컴퓨터가능)
▷울산시 언양읍
010-9215-6295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 · 법당
거사님 또는 보살
모십니다
051)242-1684

조용한 암자에서
가족같이 지낼 스님,
행자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
011-306-3504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자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 3개월 완성 ●속성반 :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랭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동국대학교 육임학 강좌 안내
국가사, 기업사, 인간사를 통찰케 하는 강의!!!
이론과 임상사례를 병행한 생동감 넘치는 강의!!!

담 당교수 : 이우산, 고려육임학회장, [육임입문]저자

강 의특징 : 국가와 기업 운영자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를, 인생상담업 종사자에게는 핵심을 찌르는 피흉추길을, 일반인에게는 사회생활에서의 슬기를 통찰케 한다. 명리학이 인생을 조망하는 망원경이라면 육임학은 한 가지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길흉을 결론짓는 현미경이다. 또한 육임학은 출생 연월일시와 무관하게 묻는 즉석에서 즉문즉답하는 학문으로 음양오행 이론의 꽃이요 열매이다.

교 육기간 : 초급과정 9월 - 11월 (3개월과정)

개 강 및 강의시간 : 9월 4일 오후 7시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50분

원 서접수 및 등록 : 2007년 8월 1일 ~ 8월 31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8

강 좌내용 문의 : 고려육임학회 카페 02)816-2115

대중포교 친견고민 끝!
"효사육임록변집"
- 드디어 공부할 필요없이 쉽게 활용되도록 해 놨습니다 -
이 육임활용서는 효사 육임래정비법 의 최신 "완결판" 입니다.
60갑자를 매일별로 3장 6면에 편성, 독립제본(A4,A3용지크기 2종류)
하여 ①왜 왔는가? ②어 떤 정황인간? ③형 이 상 각법 (작사귀 병귀 침범여부 및 그명칭, 부정빌미침범여부 및 그 명칭,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망자육친, 산소탈 이유, 후손재해, 묘지경관, 묘지물형좌, 묘지속상태, 각각의 해소지침) ④상 면 운 세 판단 ⑤피 별 나이별 길흉 ⑥묻 는 목적사 23 항목별 성부 ⑦1년 월별 신수 ⑧원 전 육임직지요결 등등을 또박또박 기입해 놓아
■정확도 ■효과성 ■간편성을 담보시켰습니다.
표시된 방문시간과 표시된 해당국수만 주-욱 보고서 보듯 보아나가면 정곡을 찌르는 위력 이 있게 됩니다.
이외, 실생활에 적용되는 즉시적 능동적 육임활용간단비법들을 순서에 맞춰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 60갑자 60권, 동일한 각일치 3장 6면의 양식구성에만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정확도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학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활용하여 효과가 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굳이 말씀 드립니다.
■ 주문 : 02)993-8680 (60갑자일 각 순 10권씩, 6순 60권 독립제본, 8월 20일부터 1-6차 발송함)
■ 입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김나형
■ 대금 : 250만원
(100만원 입금후 3개월 분할가능, 카드결제가능, 교환 할인 접수는 마감됨)
육 임 나 라
www.taoetmple.net
효사육임강론 序六版과 기존 강론 · 강의록 교환접수합니다.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프로그램과 기존 Ⅰ·Ⅱ·Ⅲ 과 교환접수합니다.

[생활명상서]
명상 그 푸른눈의 지혜
- 다양한 명상법과 수련방법 안내 -
고목 지음
신국판 276쪽
₩10,000
(주)미래아이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함이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的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 법당 : 36㎡(실 약15)
- 요사 : 115㎡(35) 무허가
- 부지 : 149㎡(45)외 사유지 약 30평
- 가액:3억2천

- 위치:경남
- 법당: 69㎡(21)
- 요사:105㎡(31)
- 부지:1356㎡(41)외 국 1696㎡(514)
- 가액:2억5천

- 위치:경남마산
- 법당:82㎡(25)
- 요사:132㎡(40)
- 부지:1155㎡(350)외
- 가액:7억3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바닷가
- 부지 : 130평 (시유지30평 포함)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2동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 120년 역사 전통 사찰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4억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도심포교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주산인 우암산 중턱 ● 대지 : 53평
- 건평 : 대지전체 건물축조 (※2005년리모델링건축함)
  ①1층-전통흙벽돌 및 목조건축 53평 ②2층-준 2층이며 목조 및 캐노피발코니건축 25평
- 양도가 : 2억 7천만원 ① 승계가능한 융자5천만원 포함
  ② 현사찰기능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모두 포함
- 사찰특징 : ① 쾌적한 환경 및 시내조망권최상
  ② 현재 포교활동 및 사찰 운영 재정상태 원활함 ③ 도심포교와 연계하여 공동체 마을 운영중
  ④ "공동체마을"까지 인수하실 경우 "도심선방"으로도 연계 사용가능함
  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소재"공동체마을 규모"
- 대지 : 200평 건물 : 법당45평,공양간45평 ● 공동체 마을 인수금 : 1억원

016-401-6254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80평
- 법당 : 40평(2층)
- 요사 : 40평(1층)
- 가액 : 2억 8천만원
- 특징 : 도심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 위치 : 대전광역시 소재
- 법당 : 50평(방3개)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600만원
- 특징 : 사적공원에 위치한 도심포교당임 (대구,일산에도 같은조건의 포교당 있음)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포교당 안내

- 울산 신축사찰 엘리베이터(유) 9억5천
- 해운대구 50년 전통사찰 320평 10억
- 수영구 30년전통사찰 100평 5억
- 해운대구 반송 포교당 40평 1억6천5백

※부산경남근교 2억~10억 사찰 긴급구함(신속처리 비밀보장)
부산경남연산불사 010-2460-3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인천 부근 주변환경 최요지, 주차완비
- 평수 : 90평
- 즉시법회가능. 시설완벽
- 보증금 5천만원/월7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056-7712

대가람사찰,휴양지펜션 납골당 조성 터 (급) 안내

- 영천시 임고면. 대구에서 45분거리 (산세가 수려한 영천댐 인근)
- 임야 : 9만평
- 지방 2차선
- 평당 1만5천원(절충가능)

016-510-67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마산 산업시장 앞
- 평수 : 30평
- 4층 중 2층 전체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시설 최상급 즉시입주 법회가능

055)232-7151
055)243-3758
011-599-8476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춘양에서 15분거리. 해발 600고지 주위 경관이 아주 뛰어남
- 사찰, 별장, 고시원, 팬션, 다용도 터로 활용가능
- 전 4,000평, 대지 200평
- 주택 30평,창고 15평 1동 실사용 평수 6,000평
- 도로 포장 집 앞까지 완료
- 가액 : 6억 5천만원

054)673-6496
010-5400-66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402평, 임야 30평 (실사용평수 약 600평)
- 대웅전 33평,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 석탑,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7억5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뒷면 소나무, 전면 민가 및 전답, 포교도량으로 최적지이며 조선시대추정 약사석불, 석탑,
- 법당25평, 요사30평, 산신각, 종교부지300평, 시유지600평
- 토굴 조성하여 입산하고자 양도하오니 보신후 절충가함
- 가액 : 1억 8천만

011-677-8525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 부지 : 12,078㎡(366평)
- 기타 : 330㎡(100평)
- 법당 : 목조 기와 단청 39.6㎡(12평) 요사채 : 181㎡(55평)
- 심야보일러,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6-820-7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6-9757-5608
033)257-7124

멋진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령
- 대지 2,000평, 대웅전 40평,
- 요사채1, 현대식목욕탕, 화장실, 부엌2개, 큰방4개, 요사채2개, 1층방 15개, 2층방 15개, 다락방 큰 것 2개, 수도꼭지 34개, 목욕탕 샤워기 30개, 소형연못, 각층 수세식 화장실, 돌계단, 2007년 5월 올 수리, 현대식 리모델링
- 8억에 급 안내. 절충가능

011-869-8608
011-872-7073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불광동
- 평수 : 35평
- 보증금 15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법당,방1개,공양간1,접견실 기도처로 적합

010-5573-2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 대지 : 229평
- 2층 법당 20평 1층 요사채 39평
- 가액 : 3억
- 신축불사

031)672-11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포항시육거리 (구,시청앞)
- 건평 35평(2층)
- 법당 잘 꾸며져 있음
- 몸만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옆 건물은 다방(살림도 가능)
- 가액 : 시설비 1300만원 보증금 200만원, 월32만원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근교 (마산, 창원 15분 거리, 톨게이트 5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 325평(텃밭 약200평)
- 법당 : 기와 목조 25평
- 부처님 모셔져 있음, 다실 있음 요사채(현대식 20평) 방2, 욕실, 입식부엌, 보일러실, 그 외 창고 및 신도용 화장실 약 10평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
- 가액 : 1억6천5백만원

011-868-0436

촌집(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대지 92평
- 건평 25평
- 가액 : 6천5백만원 (밭 14평 무상으로 드림)

011-884-776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 3억3천만원 (가격절충가능) (1억5천 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

010-4583-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도 경계 (원 도봉산)
- 시위지 약 300평
- 임법당 건평 45평, 별채 18평
- 경내에 칠층석탑, 관음석불 있음. 심야보일러
- 4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공기청정, 조용하고 산세수려함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찰터(급)안내

-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 약 6000평
- 북한강이 보이며 전망 좋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7579-357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 후문쪽)
- 평수 : 45평 (5층건물 4층)
- 시설일체 완벽
- 가액 : 4천만원 (전세금+권리금)

051)516-0650
017-252-27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 도마 초등학교 부근
- 법당 : 50평(2층)
- 주방, 방3개
- 전세 2천2백만원 시설비 : 5백만원

017-420-5258
010-7163-69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 법당 : 20평
- 요사채, 식당, 산신각
- 대지 전임야 1,20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1-540-33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서2동
- 평수 : 40평 (4층건물 3층)
- 신중,후불,산신,탱화,삼존불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30만원 시설금 2천5백만원 4층 가정집 전세2천만원
- ※ 시설일체완비

010-9848-7006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 1만여평 부지,전각 10여동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2.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7-373-5998

사찰(급) 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문수사
- 총평수 1700평 중 허가면적 540평
- 건물 : 요사채, 산신각 포함 약 100평

※현재 공사중, 스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급히 양도함
※공사총액 약4억 소요되었음 답사후 가격절충

055)572-0405
011-9850-820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기남부
- 부지 : 42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63평
- 가액 : 9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별장)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중심가)
- 대지 : 175평(주차장 30대)
- 법당 30평, 요사채 현대식(2층건물)
- 가액: 3억 5천
- 특징: 사찰 뒤 산이며, 앞은 이천시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새절입니다. 공찰 주지 소임관계로 새로 사찰을 건립하고자 하는 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016-510-34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신축건물)
- 부지 : 5,700여평
- 법당 건물 3동, 요사채 4동
- 창고 및 부속 건물 2동
- 가액 : 18억. 절충가능

010-4445-5179

임법당(전세)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유명한 바닷가 공원 3분거리)
- 대지 : 74평(건평 약20평)
- 주차가능, 텃밭있음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불
- 시설 깨끗함.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살림살이 2천5백만원

011-402-1669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삼태산 옥여봉아래
- 계곡 암석바위
- 도로, 전기수도, 2차선에서 약 700미터
- 단양 20분, 제천 30분, 어상천면 5분거리 펜션단지 5분, 서울 2시간
- 대지, 전 : 총 965평
- 평당 7만원(주인직접)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정릉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대지420평
- 전세 1억. 월세가 보증금3천/월70만원

02)943-857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국	경남남부일원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교임종간호 활동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

환자에겐 고통 완화, 가족들에겐 정신적 안정 도모
불교계, 임종간호 과정 운영 복지사 양성 적극 나서
자연스러운 불교 접촉은 장기적 포교효과로 연결



젓갈을 팔아 자식을 키워낸 박모씨(66세, 여). 암 판정을 받고도 일을 계속하던 그는 배달을 다녀오던 길에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몇 달간 임종간호를 해주던 전옥자씨(수인봉사단 회장)의 휴대전화 번호. 개신교신도인 박씨의 자녀들에게 전씨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부처님의 길로 안내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냐"고 설득했고, 자녀들도 그 뜻에 따라 어머니를 사찰에 모셨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사찰을 찾던 첫째 딸은 몇 달 만에 결국 어머니가 걸었던 '불자의 길'을 선택했다. 개종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밝혀준 불교임종간호를 통해 새로운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잘 사는 법(웰빙, Well-Being)'에 못지않게 '잘 죽는 법(웰다잉, 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죽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갖자는 '웰다잉'은 그러나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갑작스레 시한부 인생이나 죽음을 선고 받은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한탄하거나 분노하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임종간호다.

▷임종간호란

터미널케어(terminal care)라고도 불리는 임종간호는 시한부 인생을 살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육체적 · 정신적으로 돕는 일을 말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hospice)와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임종간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환자에게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돕는다. 임종간호의 목적은 의학적인 치료를 동반한 '수명 연장'이 아닌, 환자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있다. 환자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환자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종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의 갈등을 풀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상담 등도 넓은 의미의 임종간호에 포함된다.

▷종교계 임종간호 현황

이미 개신교나 가톨릭 등에서는 임종간호 봉사가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 1988년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된 데 이어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조직을 갖추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태복지재단, 진각복지재단 등 종단의 복지재단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02-313-5124)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02-2202-5831), 조계종 포교사단(02-927-0588), 환희불교복지대학(051-203-9436) 등에서 '케어복지' '호스피스' 등의 이름으로 임종간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와 김제 금산사 등은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케어복지관 불교특별전형 과정을 운영해 불자 사회복지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능행 스님이 운영하는 청주 정토마을은 1999년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갖추고 임종간호를 펼치는 한편 간병 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도 노인요양시설을 집중적으로 설립하며 임종복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임종간호와 포교

임종간호는 임종을 맞는 사람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종간호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종교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임종자 스스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가족들과의 묵은 오해나 갈등을 풀고 마음을 치료함으로써 임종자와 그 가족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임종 후에도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고인을 떠난 보낸 아픔을 다독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아픔을 치유하도록 돕는다. 여수령 기자

<가족이들이 지켜야 할 사항>

1. 환자 앞에서 크게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환자 앞에서 우는 것은 환자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므로 늘 미소를 지으며 대한다.

2. 환자를 돌볼 때는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 가족들은 평소 환자에게 쌓인 분노가 있더라도 분노 대신 안타까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한다.

3. 환자를 앞에 두고 몸 상태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환자의 기분을 잘 살핀다.

4. 환자는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답답하게 생각한다. 이때 가족들은 환자 입장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화로 설득해야 한다.

5. 환자 앞에서 가족들은 가급적 대화를 삼가고 손님이 찾아올 때는 환자가 듣지 않도록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6. 임종이 가까워오면 환자의 방(병실)을 청결히 한다. 머리 위에 수건 등의 물체를 걸어두거나 놓아두지 않는다.

7. 환자가 맑은 정신일 때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임종 때는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경건한 분위기에서 환자가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염불을 들려준다.



47. 차(茶)의 전승(傳承)

응송 · 초의 선사 문헌 수집 등 차 전승 노력
선종 제다법 연구 … 박동춘에 다도 전수도

인간은 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망으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 빠르고 쉽게 변화되는 것 속에서 전통은 흔히 낡은 것, 지나간 역사쯤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통은 환경과 습관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그 지역의 풍토와 정서에 어울리는 숨구멍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늘 옛 것을 그리워하며 집착하게 된다. 원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형이 유지된다. 전통은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

한국의 음다풍(飮茶風)은 초의 선사 이후 각 사찰과 해남 대흥사에 기거했던 스님들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초의가 평생을 보낸 대흥사는 우리 차 문화의 산실이다. 역사적으로 불우했던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차를 이어온 노력이 있어 우리 차는 아주 조용히 이어져 왔다. 응송 박영희(1892~ 1990) 스님은 1911년 출가하여 80여년을 대흥사와 인연을 맺었다. 그 당시는 초의 스님이 열반한지 45년, 범해 스님이 열반한지 10여년이 흐른 뒤라 대흥사에는 초의 다풍(茶風)이 살아 있었다. 응송 스님은 초의 문헌인 <동다송>과 <다신전>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초의의 제다법과 차의 정신을 연구하였다. 김운학 스님은 "지금 우리가 초의를 이야기 하고 우리 차의 전통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응송 스님의 공로이다. <동다송>을 우리의 다경(茶經)으로 자랑하는 것도 응송 스님이 필사본을 보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해남 대흥사 산중 암자인 백화사에서 故 응송 스님(당시 94세)의 망중한(忙中閑).

응송은 대흥사로 출가 전 어린 시절부터 소년의병 활동을 하는 등 항일 투쟁에 앞장섰다. 3.1운동을 맞이해서는 만해 한용운의 밀명을 전달하는 연락책을 맡기도 한다. 1937년부터는 대흥사 주지를 맡게 되고 그 이후 대흥사 아래에 있는 백화사(白化寺)에서 초의 선사의 문헌을 수집 연구하는 등 평생을 우리 차 전승을 위해 노력한다.

응송은 백화사에 기거하며 <동다송>과<다신전>을 번역하고 차에 대한 책을 저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문(潤文)을 하게 된 이가 박동춘이다. 그 인연으로 백화사에 머물며 스님과 함께 시도 짓고 차나무를 삽지해 키우며 차를 만들기도 하였다. 응송 스님의 초의 스님 제다법과 문헌 연구는 계속되었으며 <동다정통고>를 통하여 제다와 그동안의 차에 대한 연구를 저술하게 된다.

응송 스님은 차를 우릴 때 물의 온도는 60~70도로 식히는 일반 다법이 아니라 95도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열탕을 고수하였다. 이는 우리의 야생차는 본래 고온에 잘 견디며 일본종의 찻잎은 고온에서 문드러지기 때문이다. 우리 차는 제다 방법 및 우려마시는 방법도 다르다고 한 것이다. 79년에 인연이 된 박동춘에게는 무공(無空)이라는 호와 함께 다도 전수게(茶道 傳授偈)를 내린다.

다양한 역사 속에서 차 문화는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화와 산업화라는 보편성 때문에 쉽고 간편한 획일적 사고로 차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전승된 전통 차 문화는 전략적 자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준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개인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9. 3(월요일반) / 9. 8(토요일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매주 금요일 임상 및 개인지도(무료)
매주 화요일 무료 공개강좌

매화역수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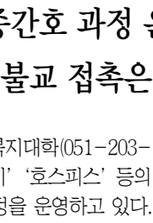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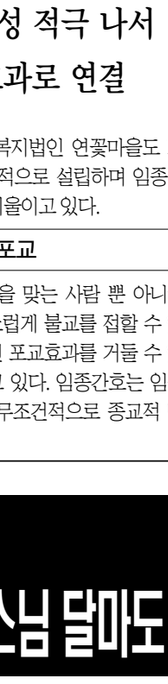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축봉산 원효대
● 법 명 : 석마(김정곤)
●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750번지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9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 학력 : 고졸이상
◆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반 백년 통제로 원시생태계 유지


건봉산 줄기.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4) 금강산 건봉사

건봉사의 창건연대는 6세기 신라 법흥왕 때로 올라간다. 그 무렵 이 지역은 고구려 영토였다. 게다가 아도화상이 고구려 국적을 가졌으니, 건봉사는 고구려 옛 절이다.

신라 경덕왕 대에 발징선사가 이곳에서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만일회의 효시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31본산의 하나가 되어 전성시대를 구가했으나, 한국전쟁 통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건봉사는 이름 앞에 '금강산'을 즐겨 내건다. 금강산(1638)에서 무산(1320)으로 내려온 백두대간이 향로봉(1296)을 세워놓고 설악산으로 남하하기 전 산줄기 하나를 북쪽으로 뻗어 올렸는데, 그 산이 해발 911m의 건봉산이다.

건봉사의 초입에 50여기의 부도와 30여기의 탑비가 흩어져있는 부도전이 있다. 부도전 주변에 가을을 여는 야생화들이 벌써 형형색색으로 단장을 하고 나섰다. 금꿩의다리, 영아자, 마타리, 무릇, 까실쑥부쟁이, 참나물꽃, 며느리밥풀꽃, 도라지, 더덕 등은 8월 중순이면 건봉사 주변에서 만나는 꽃들이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야산고비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금꿩의다리는 여러해살이 풀꽃으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햇볕이 드는 습지를 좋아해서 부도전 맞은편 습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은 분홍색을 띠고, 꽃술은 황금색을 띤다.

중부지방 깊은 산에서 볼 수 있는 영아자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꽃으로, 햇볕과 습기를 모두 좋아한다. 키는 1m 가량이다. 털이 보송보송한 줄기 끝에 5개의 꽃잎으로 이뤄진 보라색 꽃이 핀다.

100년 된 홍송, 금강역사처럼 '우뚝'

부도전에서 500여m 가량이면 들머리 솔숲을 만난다. 수령이 100년은 족히 보이는 노송들이 금강역사처럼 서 있다. 줄기가 붉은 전형적인 홍송이다.

건봉사 주차장은 일제강점기 때 절에서 세운 봉명학교가 있던 자리이다.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시멘트를 걷어내고 생태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듯하다.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는 불이문은 4개의 돌기둥 위에 팔작을 얹은 다포건물이다. 불이문 옆에 큰 팽나무 한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건봉사 주변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다. 몸집 좋은 산뽕나무도 한 그루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불이문을 지나면 건봉사 경내가 시작된다. 가람배치는 대웅전 지역, 옛 극락전 지역, 옛 낙서암(樂西庵) 지역, 적멸보궁 지역 등으로 나뉜다.

극락전과 낙서암 옛 터는 온갖 곤충들의 해방구이다. 콩중이, 팥중이, 여치, 검은다리실베짱이 등 메뚜기 종류도 많고, 노랑나비, 황오색나비, 팔랑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등 나비 종류도 이 구역에 많다. 그들을 노리는 왕사마귀, 파리매, 왕잠자리, 개구리 등의 천적들도 많다.

건봉사 주변에 노랑나비들이 흔하게 관찰되는 것은 옛 절터와 연병장에 햇볕이 양명하여 그들이 서식하기에는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끼풀, 벌노랭이, 개자리, 고삼, 개망초, 엉겅퀴, 민들레 등이 봄부터 가을까지 그들에게 꿀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극락이 따로 없다.

낙서암 지역은 '용사활지(龍蛇活池)' '방생장계(放生場界)'라고 쓴 두 개의 돌기둥을 들어서면서 펼쳐진다. 서로 상극이라는 용과 뱀이 함께 사는 연못이요, 모든 생명의 자유로운 경계라는 뜻이니 이보다 생태적인 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길이가 6cm에 이르는 먹줄왕잠자리 암컷이 미동도 없이 연못 속에다 알을 낳고 있다. 먹줄왕잠자리는 남방계 잠자리이다. 지구온난화 탓인지, 근래 설악산 지역에까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북쪽인 이곳까지 올라와 서식산란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건봉사 주변에는 버들하늘소를 비롯하여 붉은산꽃하늘소, 왕풍뎅이, 청동풍뎅이, 산맴돌이거저리 등 딱정벌레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버들하늘소는 주로 검은 색과 검붉은 색인데, 딱지날개(굳은날개)에는 4개의 세로줄이 뚜렷하게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주로 여름에 많이 활동하며 야행성이라 불빛에 잘 날아든다. 애벌레나 번데기 상태에서 썩은 활엽수 속에서 겨울나기를 하며 늦봄에 어른벌레가 된다.

건봉사에는 도회지와는 달리 유지매미가 우점종이다. 몸은 흑갈색이며, 날개는 불투명하고 짙은 적갈색 무늬가 나 있다. 울음소리는 솥에 기름 끓는 소리와 흡사하다.

한때 산영교(山映橋)라고도 불렸던 능파교(凌波橋) 아래로 맑은 계류가 흐르고 가장자리로는 달뿌리풀이 그득하게 자라고 있다. 이 계류에는 버들치를 닮은 1급수 버들개가 살고 있다. 버들치보다 약간 작고 비늘이 잘다.

강원도 '고성'하면 사람들은 맨 먼저 '산불'을 떠올린다. 강원도의 악명 높은 산불은 거의가 군부대에서 포사격 연습 과정에서 발화되었다. 건봉사는 산불이 전각에 옮겨 붙을 것을 방비하여 전각 뒤에 초목을 베어내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해놓았다.

농사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부터 주위에 제비가 귀해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절반에 가까운 43% 가량이 사라졌다고 한다. 오갈 데 없는 제비들이 몇 해째 건봉사를 찾아와 전각 처마에 둥지를 틀었다. 논 한 뙈기 없는 깊은 산중에 제비가 모여드는 것은 생태적 비극이다.

경내 잔디지붕 객사, 습기 조절 우수

경내에 잔디지붕을 한 객사가 눈길을 끈다. 잔디지붕은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습기 조절 능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벌레가 생기고, 배수기능이 떨어져 물이 샐 염려가 있다. 주기적으로 잔디를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건봉사 일대는 전쟁 후 곧바로 군부대가 들어서 있던 곳이어서 지금도 허물어진 막사와 연병장 등이 잡초 속에 묻혀있다. 외곽으로는 통금철조망이 살벌하게 휴전선으로 이어졌다.

반백년을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던 까닭에 주변에 포플러, 은백양, 현사시나무 등이 생뚱맞게 들어와 있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들어온 외래귀화초본들도 유난히 많다. 돼지풀, 미국실새삼, 미국쑥부쟁이, 미국자리공, 미국가막사리, 달맞이꽃, 방가지똥, 서양민들레, 큰강아지풀, 서양등골나물, 뚱딴지, 털여뀌, 환삼덩굴, 망초, 개망초 등 거의가 그렇다.

키가 1m정도 자라는 돼지풀은 한국전쟁 때 미군의 군화에 묻어왔다고 해서 일명 '양키풀'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원산의 귀화식물로서 저지대의 공터나 길가에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다. 꽃가루가 눈이나 코에 들어가 안질과 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절에서 조경화로 심은 원추천인국도 미국산이다. '루드베키아'라고도 부르는 이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연이어 피고, 생존력이 강해 도로변에 손쉽게 심고 있다.

절 뒤로 등공대(騰空臺)로 가는 산길이 빼꼼이 나 있다. 등공대는 '소신대(燒身臺)'라고도 불리는데, 중흥조인 신라 발징화상이 여러 신도들과 염불만일회를 개설한 곳이다.

등공대로 가는 길 입구에 작은 저수지가 있다. 잘 관리하면 생태연못으로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염려스러운 것은, 함부로 방생한 붉은귀거북들이 이 연못의 생태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거북들이 집중호우 때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는 날이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건봉산 녹지 우수 천연보호구역 지정

등공대까지는 군사용 철조망 문을 지나 30분 거리, 주변의 숲은 소나무와 활엽수의 혼효림이다. 소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느티나무, 엄나무, 층층나무, 개옻나무, 붉나무, 때죽나무, 쪽동백, 생강나무, 싸리나무. 군작전상 큰 나무들을 없애다보니 나무들의 수령도 대부분 30년 안팎이다.

건봉사 주변의 생태계는 반백년의 오랜 세월 동안 군사지역으로 있었던 까닭에 크게 훼손되어 있지만, 건봉사를 벗어나면 원시생태계를 보여준다. 건봉산은 이웃한 향로봉과 함께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천연보호구역 제2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의 생태계가 잘 보전된 까닭은 반백년 동안 민간인 출입통제가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동해안이 있어 생육 환경이 다양한 데 기인한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건봉사 전경.


원추천인국.


유지매미.


금꿩의다리.


버들하늘소.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泙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 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CONGKEON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모두가 한마음의 불이다! 한마음의 광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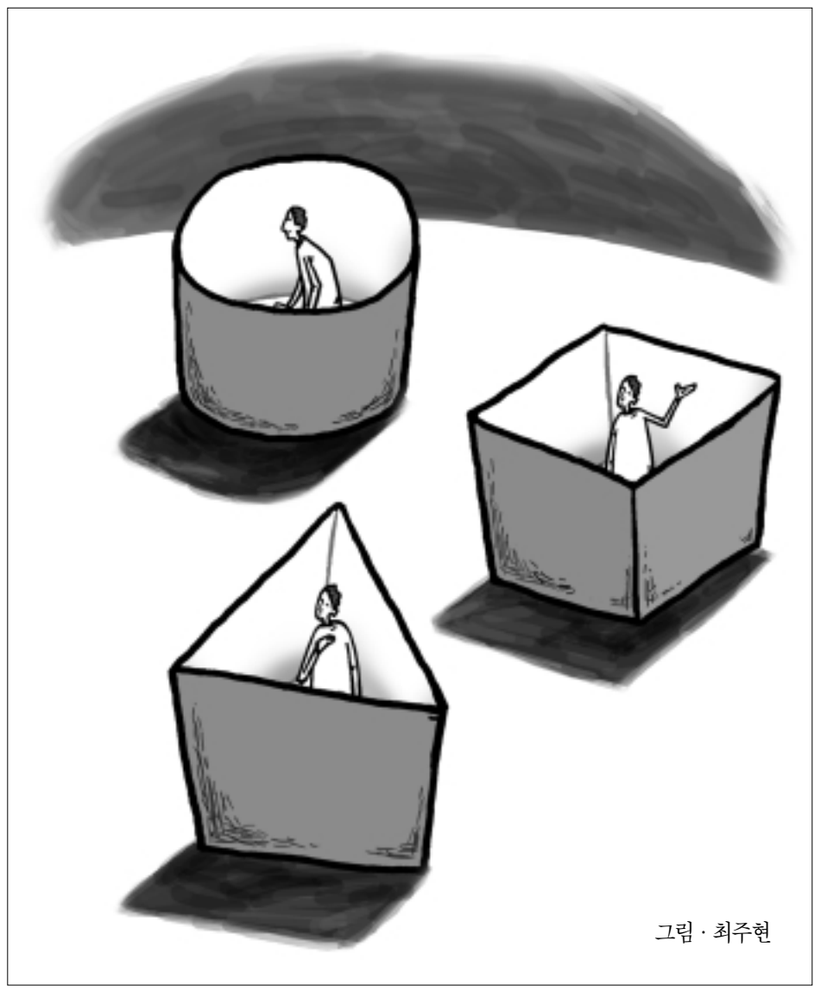
▲사회자: 스님께서 2개월이 넘게 해외 포교를 위하여 북 · 남미를 두루 순회하시고 지난 29일 귀국하셨습니다. 피로와 여독이 채 가시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만 저희들을 위하여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스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지극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극하게 자기가 온 자리와 갈 자리, 또 지금 하고 있는 자리, 이것을 아시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죽으면 무슨 천당에 가느니 승천을 하느니, 이런 따위의 이론이나 잡담에 지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부 앉아 계십니다.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내주신 덕분에 그저 사흘들이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심지어는 목욕하러 가서까지 설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두 달째 목욕을 못해서 목욕탕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목욕하러 온 사람들이 법석을 마련해 가지고는 거기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예정을 잡았었습니다. 두 달에 끝마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죠. 11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크니까요. 15시간 타는 데도 있고, 뭐 6시간 타는 데, 7시간 타는 데, 또 3시간도 탈 때도 있고, 2시간도 타고 이렇게 해서 그저 사흘들이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염려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 몸을 지탱하면서 조금도 어떠한 내색이 없이 내내 그저 정진해 나갔습니다. 그래 여기 오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원불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내 종교만 좋다고 야단들 하고 남의 종교는 짓밟아서 뭉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하면 미신 소굴인 줄 알아요. 모두가 미신 소굴로 생각하고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님네들까지 내쫓고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금 한마음으로 공부하듯이 '어느 종교든 한 뿌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한 지구에 붙어사는 한 동물로서, 자기의 관념으로만 '내 종교가 옳다'고 졸렬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역설을 했더니 모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찬성을 해 줬습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찬탄을 해 줬습니다.


그림 · 최주현

이렇게 마음속에 감응이 되게 했고, 눈을 새삼스럽게 뜨게 했고, 귀를 새삼스럽게 열게 했다고 말입니다. 불교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은 정말 미처 몰랐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제자들은 '아이, 속 시원하다'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수적으로 이것을 믿고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세상만사가 돼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참나'인 자신의 뜻을 항시 중시하고, 항시 그 뿌리를 믿으십시오. 거기에다 거름과 물을 줘서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와 잎새가 아주 싱싱하게 자라서 제 나무에서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그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따서 그런 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나무가 무성하질 않아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익지 못해서 그냥 말라 버리는 형상이니까 맛이 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공부도 역시 그러합니다. 한 치도 에누리가 없는 공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슨 판결을 내려서 1년, 2년 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법에 의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그렇게 바쁘게 휘몰아치고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 내에서도 정신이 없어 합니다.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고 뭐, 거기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도 그렇고 아주 정신이 없어 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치니까요. 그래서 저기서 설법을 하고서, 비행기를 금방 타고 와서 또 여기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니까 저녁나절에는 피곤함이 좀 옵디다. 그래서 바람을 쐬려고 스님들하고 모두 산책을 하다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겁니다. 항상 알고 있고, 항상 하고 있고, 뜻으로도 항상 그렇건만 말입니다. 흑인이, 허허허…, 새카만 흑인이 새카만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데 새카만 초콜릿을 손에 쥐여서 이렇게 물리고 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구나!' 하하하…. '이게 모두 철칙 같은 법이고 조금도 에누리가 없구나! 흑인이 백인 낳는 거 봤나?' 하면서, 속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딴 사람이 모르거나 안 본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못해 보고 갑니다, 그렇게 에누리가 없건만. 요 조그마한 데서부터 끝까지, 끝에서부터 또 끝까지 돌아가면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사실을 너무나…, 그걸 새삼스럽게 본 건 아닌데 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혼자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허허…. 그러고는 궁둥이를 탁탁 털고 일어서서 오면서 얘네들더러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우습다고 웃고들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세상만사,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가 그렇게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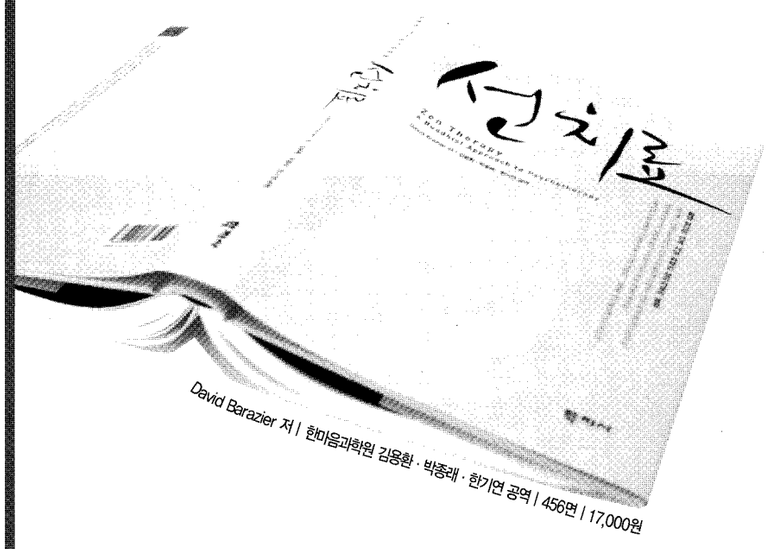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여러분은 천당 지옥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니까 천당인 거고 지옥이라니까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들 그냥 멋들어지게, 아주 유유히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에누리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을 해서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소같이 살면 소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으로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로 나올 것이고…. 하하하….

그런데 오간지옥이니, 칼산지옥이니 또는 독사지옥이니, 이 모든 지옥 지옥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다!' 하면 짐작으로만 그냥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다가,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의 모습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자동적으로 땅속으로 다니는 독사 소굴에, 독사의 암컷 수컷이 행하는 거기다가 그 영령이 집어넣어져서 그냥 독사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그냥 독사로 살아왔으면 별 문제인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독사로 들어가서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독사로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살듯이 어떠한 한 몫어치만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간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전부 헌갓쟁이 모양으로 다니며 그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땅속 깊이 뚫고 다니는 이런 것들 소굴에다 그냥 넣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넣어진다면 땅속으로 기어다니는 벌레가 될 테니까 그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갔으니까. 지옥인데다가, 그것이 진화돼서 또 인간까지 벗어나려면 얼마만큼 헤매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좋은 일하고, 좋은 생각 하고, 좋은 행동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사대 성인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쁜 일이 또 거기 끼어들게 마련이니까 나쁜 일도 놓고 좋은 일도 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 그런가? 나쁜 일, 좋은 일을 막론하고, 그 생사윤회 속에서 완전히 해탈해서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 좋은 일을 해서, 그 선덕으로 인해서 좋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쁜 일도 하게 되니까, 또 짓게 되니까 아예 '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이런 뜻에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나도 길잡이로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철 요렇게, 한 생을 요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를 다니면서 공부했다거나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했다

☞22면으로 계속



David Barazier 저 | 한마음과학원 김용환 · 박종래 · 한기연 공역 | 456면 | 17,000원

선치료

동양 정신인 선과 서양 과학인 심리치료의 융합

심리치료는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은 신성한 행위다.
현대생활은 그러한 신성함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은 그것을 향상시킨다.
선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수행이며, 자아실현을 넘어서 있다. 매일매일의 선수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모든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Z·E·N·T·H·E·R·A·P·Y



David Brazier

오랫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접목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온 심리치료사로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 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선 수행자다. 아미타 트러스트(Amida Trust)라는 수행 단체(http://www.amidatrust.com)를 조직하여 불교 심리치료의 교육, 참여 불교 프로젝트의 추진, 현대적인 수행 공동체의 개발 등 불교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 단체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마음챙김명상 수련 시 제기되는 물음과 답
마음챙김명상 108가지 물음
장현갑 외 공저 | 248면 | 12,000 원


내면에서 빛나야 할 직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심리치료입문
매튜 플릭스타인 저 | 고형일 외 공역 | 224면 | 13,000 원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D 저 | 전현수 외 공역 | 300면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 384/352면 | 10,000원


국내 최초의 동양상담학 개론서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박성희 저 | 각권 100면 내외 | 세트 63,000 원
❶ 마음과 상담 ❷ 불교와 상담 ❸ 선문답과 상담
❹ 논어와 상담 ❺ 퇴계유학과 상담 ❻ 도덕경과 상담
❼ 모리타 상담 ❽ 나이칸 상담 ❾ 동사섭 상담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지켜보고 마음으로 다스려가면서 체험하라!

☞21면에서 계속

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를 공부해도 '정(定)'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10년, 20년이 가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건 아니지마는 더디다 이거죠. 그런데 몇 달 안 됐어도, 몇 해가 안 됐어도 정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디고 빠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래 배웠고 늦게 배웠고 이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이름이지 '이름 없는 마음' 여기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 해서 방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연방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처구니없이 나쁜 일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업보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을 잘하려고, 말도 잘하려고 하지만 앞서 입력됐던 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빗나가든 빗나가지 않든 '무조건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맡겨 놓는다. 믿지 못하면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쉴 사이 없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그 어마어마하게 입력됐던 팔자 운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해 오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하게, 눈물이 뼈에 사무쳐 나오리만큼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지 못할까? 어찌 그렇게 과거로부터,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자기를 끌고 온 장본인을 믿질 못할까?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를 시켜 가면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것대로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주인공 원망할 수도 없지.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아, 태양이 '너 잘못하고, 너 잘하고' 이런 거 말했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잘못돼서 행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이 속으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을 '이러면 안 돼!'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는 거죠. 맡겨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나는 어떤 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슬그머니 이 속에서 눈물이 복받칩니다. 여러분을 생각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남인데, 자기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변질돼서 돌아갈 때,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 부모가 됐다가 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사생(四生)의 모든 천차만별의 생명이 뒤바뀌지면서 돌아갔을 때는 어떤 것이 내 자식이고,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디다. 뭐, 풍뎅이도 그렇고, 가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남녀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남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연방 변질이 되고 연방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어느 때 어떻게…,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죠,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사십구 년을 설하시면서도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한 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렇다고 하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이거든요. 지렁이 소굴에서는 지렁이가 높고, 호랑이 소굴에서는 호랑이가 높고, 안 그렇습니까? 저마다 다 높은 거예요. 저마다 다 높고, 저마다 다 나 아님이 없으니, 자기 아님이 없으니, 자기 아픔 아님이 없고 이러니, 따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없죠. '내가 마음을 내서 너희들에게 길을 인도했다.'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 줬다.' 이럴 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 컴컴하면
> 불을 켜서 밝게 살고
> 배가 고프면 먹고
> 똥 누고 싶으면
> 시원하게 똥 누고
> 잠자고 싶으면
> 편안하게 잠자라
> 그냥 그대로!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걸로 표현해서 얘기해 드리죠? 줄과 줄, 전깃줄과 전깃줄, 전자와 전자라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모습은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이 여기 와 닿을 때, 나도 간절한 마음이 합축이 돼서 가서 부딪치면 불만 번쩍 일어났지, 이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 이럴 수도 없고, '내가 가르쳤다' 이럴 수도 없어요, 네? 저쪽 놈도 있으니까. 상대성 원리로서의 이쪽 놈과 저쪽 놈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는 반면에 '불만이 덩그마니, 밝게 광명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하여간에 모두가, 99%는 부처니까, 중생을 끼고 다녀서 걱정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의 불이다, 한마음의 광명이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육근(六根)이 어쩌니, 육진(六塵)이 어쩌니, 육식(六識)이 어쩌니, 십팔계(十八界)가 어떠니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와짝 붙으면 불이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하신다면 '컴컴하면 불을 켜면 되고' 이 소리가 나옵니다. 왜 컴컴하게 삽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소화시켜서 똥 누고 싶으면 시원하게 똥 누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간의 꿈! 한 시간의 꿈을 홀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러겠죠? "그럼, 그렇게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하고 또 따지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따집니다. 그러나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탓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우리가 영화배우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주어진 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소임 소임, 자기 잘하는 대로 소임을 맡아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남한테서 받아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감독이 돼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옥황상제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하하…,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이 태양과 이 산하대지는 그대로 어머니이자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광명을 이루고 창조를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이럭하는 것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모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도 둘이 아니죠. 어떻게 천지가 둘이겠습니까?

L.A.에서도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허허허…. 나이도 많이 든 백인이 말입니다, 리어카에다가 깡통, 병 이런 것만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뛰는데 다리가 아프고 지치니까 허덕허덕 하면서 그걸 끌고 가요. 가다가 언덕에 이르니까 그냥 허덕허덕 합디다. 그걸 보는 순간, '참, 세상에도 모두가 자기가 한 대로 저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왔구나!' 개미가 왜 개미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백인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개미들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뭐가 다릅니까?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버리면, 호랑이는 양쪽 팔, 다리를 모두 떼어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짐승들이 오는데 창자 먹는 놈이 있고, 살 뜯어 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뼈에 살 붙은 걸 떼어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아주 차례차례로 그렇게 소임을 다 맡아 가지고 그렇게 뜯어 먹고 뼈다귀만 남으면 그 때는 개미 차례입니다. 그 뼈다귀 속에 들어 있는 거를 다 먹거든요. 그래, 그 백인이 그럭하고 가는 거를 볼 때 개미 생각이 퍼뜩 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개미 좀 봐!' 하고요. '사람의 모습은 가졌지만, 그런 것을 얼마나 과거에 즐겼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사람 개미로서 저렇게 소임을 맡았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망했다 이런 것도 남의 탓 할

> 세상 이치가
> 아무리 복잡다단해도
> 한 시간의 꿈입니다
> 한 시간의 꿈을
> 홀떡 벗어나면
>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
> 벗어나는 것입니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하는 길은 '내 탓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두 얽히고 얽혀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만이 그 얽힌 거를 풀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기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작업이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관법(觀法) 즉, 관해 봐라, 지켜봐라 이거죠.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다스려 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급하게 닥치면 아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곤 방방 뛰어요, 그냥. 나온 자리에다 다시 놔야 할 텐데, 내보낸 자리에다 도로 놓고, 내보낸 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래야 빨리 수습이 되는데, 엉뚱하게 딴 데다가 그냥 전부 깔아 놓고는 온통 팔팔 뛰니까 이건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돌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서야 놓으니 이미 차 지나간 자리 아닙니까? 하하하…. 우리 이왕지사 이 자리에 앉았으니 질문도 하세요.

▲사회자: 스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여독과 피로가 풀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스님: 재밌지 않아요?

▲사회자: 오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스님: 왜요? 아, 청년 법우들도 있고 그런데 뭐….

▲사회자: 다음 기회에 듣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명 깊은 법문 감사히 들었습니다.

▲스님: 하하하…. 이런 강제성이 어디 있어요? (대중 웃음)

이거 보세요! 내가 아르헨티나로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날 L.A.에서 아주 피곤했어요. (대중 스님들을 보시며) 어디서 왔지? 아, 콜로라도에서, 콜로라도에서도 또 한참입니다, 거기가. 콜로라도에서 바로 와 가지고 설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드러누웠더니 애들이 영 가질 못하게 했습니다. 가질 못하게 하니까 아, 요게 꾀가 조금 납디다.

그래서 '아이, 이거 쟤들도 그만두라는데 나도 좀 그만 쉬어 볼까?' 이러고 있는데 아, "뜨르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지원 스님한테서. 전화로 "스님이 오실 줄 알고 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난 어떡합니까,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아,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피로하고 뭐고, 어떤 것도! 하늘이 그냥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냥 와짝 제끼고선 일어나지는 기분이에요. '가야지!' 아, 그러니까 일어나집디다. 그런 거 뭐, 아랑곳없어요. 이 세상이 다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좀 열정 있게 해 보십시오. 그러고선 나한테 "아이고, 피로하시니까, 피로하시니까 그냥 쉬십시오." 이러는데 아니,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뒤로 돌아선다고 죽지 않나요? 전쟁에 나갔으면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이래 죽어도 한세상, 저래 죽어도 한세상이에요. 하하하…. 그렇게 좀 더 빠릿빠릿하고 결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위로 부모의 빚을 갚아서 건질 수도 없고, 아래로 뿌려 놓은 자식들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하고 결사적으로 해 보십시오.

▲사회자: 감명 깊은 법문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2년 8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회 풍수의 미래를 열어가는 풍수지리사 교육연수

전통풍수지리학의 전수와 생활풍수의 신지식 교육연수의 장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실시합니다.
풍수학의 폭넓은 자연관은 이 시대의 신지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에서는
▶ 건축 설계 조경 인테리어의 풍수도입 조명, 기법
▶ 부동산(토지건물)풍수가치 평가 중개업무 활용
▶ 거주환경과 생활문화의 풍수도입창조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조화로운 자아의식 개조
▶ 풍수흐름의 건강 다스리기, 풍수기파운행 풍수도행의 원신수행
▶ [민간자격] 풍수지리사 양성

교육내용
풍수택일론, 천성지리론, 생활풍수론, 양택론, 음택론 (강사 : 신평 선생 직강)

등록안내
■ 개강일시 :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 교육기간 : 2007년 8월 30일 - 10월 25일(9주간)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30분 - 9:30분(3시간)
■ 원서교부 : 2007년 8월 29일(수)까지 ■ 자 격 : 한자 기본실력을 갖춘 성인
■ 회 비 : 300,000원 (교재 : 본학회 전용 교재)
■ 접수 및 문의 : 051)332-6828~9 / 017-554-9310
■ 홈페이지 : www.hyeonmun.co.kr

교육연수 수료시
본학회 수료증 · 본학회 정회원 입회 가능 · 민간자격 풍수지리사 자격검정응시

미래전망
풍수지리사, 풍수지리전문가, 풍수적건축설계, 풍수인테리어, 풍수조경환경, 풍수적토지지가제시, 풍수부동산, 수맥, 지기맥, 양택풍수감별, 음택풍수심혈, 풍수개발(연구소), 각 문화원 강사, 장묘분야

(사)韓國玄門風水地理學會
•부산교육장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70-1 대림타운상가 111호 ☎ 051)332-6828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이 끝났다.

경선 과정의 격돌들이 경선 후의 후유증으로 이어질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별 잡음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前 대표의 패배에 대한 대승적인 대처를 두고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의 대통합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경선은 본선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선은 본선이 될 수 없다. 이제 경선의 관문을 통과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은 확실한 후보가 됐다.

연말에 치러질 대선의 한 후보가 됐을 뿐이다. 조변석개하는 정치판에서 지금 이 후보가 밟고 있는 기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성 문제들이 아직 미궁 속에 있고 또 어떤 저격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제 대선 후보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한 관심을 끌 것이다. 분위기상 그의 말이 차기 정권의 정책기조로 들릴 수도 있고 그의 행동이 표심을 움직이는 힘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후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보'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거기 숨겨진 의미들은 긍정적 측면이건 부정적 측면이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예를 들어 '확실하게 당선될 후보'라는 측면이라면 그를 예비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란 측면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별 매력을 느끼지 않고 그저 판이 끝난 뒤 그의 거취 정도에나 관심 가질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법 혜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

이명박 후보와 불교계의 관계 정립

이 후보는 지금 불교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 봉헌 발언' 등으로 불교계와 척지는 사이가 된 뒤 그가 불교계에 들인 공은 참으로 대단했다. 주요 직책을 맡은 여러 종단의 스님들은 일일이 한 두 번씩 찾아가 만났고 불교계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 해명도 했다. 일찌감치 불교 대책 캠프를 가동하며 불교계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공력이 이번 경선에 어떤 득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적지 않은 힘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에 대한 이 후보의 시각은 좀 더 교정되고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불자들은 타종교인들의 편향적이고 무례에 가까운 배타성을 잘 알고 있다. 이 후보가 향후 후보의 길을 걷는 와중에 종교적인 갈등이 새로 생기지 않으리란 확신도 없다.

이제 이 후보는 후보라는 자리에서 불교계를 볼 것이다. 그 바라보는 공간에 '공약'이 있다. 후보로서의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후보가 불교계를 향해 쏟아 놓을 공약은 불교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불교계를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허망한 공약이 급조되고 불심을 흩트리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과거의 '발언'을 의식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피한 현실이고 보면, 과거 때문에 지나치게 포장된 공약을 내놓을 여지도 없지 않다. 불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꿔주겠다는 분명하고 진실한 공약을 바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후보 측의 불교대책 캠프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겉이 화려하다고 속을 불자는 없다. 이제 대부분의 불자들이 내실을 보는 혜안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일이다.

이 후보를 상당히 가능성 있는 후보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정치판의 대선정국이 어떻게 흐르건 이 후보는 대선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입장에서 불교계 일각에서도 이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새로 조리개를 맞추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대선 정국이 곧바로 시작된 느낌이다. 불교계와 이 후보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갈지 열쇠는 이 후보와 불교계가 반반씩 나눠가지고 있지만 이 후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교계의 쓰임도 달라질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6. 문봉주 뉴욕 총영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직자 신분으로 교민 대상 기독경 강좌 개최 '물의'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정장식 포항시장에 이어 2005년 초에는 뉴욕의 문봉주 총영사가 공개적으로 기독경 강좌를 열어 공직자 신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했던 기억이 새롭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장로인 문 총영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 · 뉴질랜드 · 워싱턴 DC 등 해외 근무지마다 기독경 강좌를 열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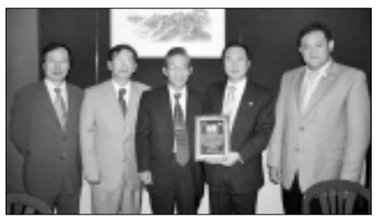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교포들을 상대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고 80달러의 수강료까지 받으며 2005년 1월 23일부터 8개월 동안 매주 '성경의 맥을 잡아라'란 주제로 공개강의를 하기로 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게다가 그는 부임 후 직원 개개인의 종교를 직접 묻고 매주 수요일 근무 시간 중인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영사관 대회의실에서 개신교인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일부 직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준 것도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종교적 선택과 양심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당시 교포사회와 불교계는 모든 교포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총영사의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교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손엔 총영사 신분을 내세우며 개신교 전도에 나서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뉴욕의 불교단체들도 "동포 사회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니,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켜 특정종교를 부각시키는 일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며 정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2월 중순, 어정쩡한 대응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 국내외 불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외교통상부에 '문봉주 뉴욕 총영사의 정교분리 침해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를 보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총영사 직함으로 언론에 광고를 내 특정종교 강좌 개설', '공무시간에 공공기관인 영사관 회의실에서의 종교행위', '부하직원의 종교를 확인하고 소외시킨 인권 침해', 기타 국가공무원법 상 '직무전념의무'의 손상 등에 관해 집요하게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2월 27일 열린 5번째 강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문봉주 뉴욕총영사(왼쪽에서 세번째)가 8월 16일 뉴욕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의를 중단하면서 문 총영사는 "개인의 신앙심 차원의 문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뉴욕과 뉴저지 45만 동포를 껴안아야 할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타 종교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사과한다. 자신의 어깨보다는 공직자의 어깨가 훨씬 무거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공직'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공직'이란 공개적일 때는 더 이상 개인일 수 없다. 총영사 역시 교민들에게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특수한 위치이다. 공직 직함 자체에 항상 권력이 따라다니므로 움직이는 국가권력이라고 보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 총영사는 "자신의 성경강좌를 통해 불교계가 입은 피해가 뭐냐. 성경강좌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오히려 항변하며 강행하고자 했다. 상황판단이 안 되었나 보다. 문 총영사가 일으킨 파장은 개신교계와 불교계의 대립이 아니며, 더구나 몇 명이 반대하는지는 중요하지도 않다. 단지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만 따져 보면 된다.

개인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취미생활과 공직자의 종교활동은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직자의 공개적 종교 강의는 국가기관의 특정종교 우대를 의미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국민에게 봉사해 달라고 위촉한 국가조직의 직위를 이용한 종교적 활동은 공권력의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직함 외에 근무 시간, 공금, 관용차, 경호원, 공공시설 및 인력 등 공적인 유무형의 자산이나 권리를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오래 전 보스턴의 한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문집에 축사를 부탁받았던 보스턴 총영사가 공직자의 특정종교 축사는 불가하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얼마나 신중한 처신인가. 한 종교계의 공적 행사에 응하려면 다른 종교계의 요청도 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기독경 강좌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이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든 그것은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는 오로지 공직자이어야 한다. 문봉주라는 개인과 총영사라는 공인의 두 신분 중 편리한 대로 개인을 내세워 공인의 의무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신앙생활은 남모르게 '숨 쉬듯이' 해야 한다.

공인이기 때문에 짊어지는 짐인 것이다. 굳이 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려면 '공직'이란 옷을 벗어던지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옷을 벗기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그래서 시급하다.

불자의 눈

동국대 학력 경력 검증 제대로

학력 속이는 사회. 교육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해서는 안 된다. 신정아씨의 가짜 학위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가짜 학력'이라는 초유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 받았던 인사가, 유명 교수가, 인기 연예인이 줄줄이 학력 허위를 고백하거나 의혹에 휩싸였다. 심지어 대규모 도심 포교당 성공신화를 낳았던 스님마저도 학력 위조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드러나며 모든 불자들과 국민들이 '가짜'와 '위조' 사이에서 앓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동국대였다. 신정아씨의 가짜 학력이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던 '비양심'의 뿌리들을 들춰내는 계기가 됐다. 물론 이 사건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온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동국대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학내 교직원 전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신정아씨 사건으로 세상에 망신을 톡톡히 당한 동국대이고 보면 이 같은 결정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총장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교직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한다는 계획은 그나마 학교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검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여 학내의 청정도를 환기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동국대는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방향 그리고 결과들을 한 치의 숨김이 없이 공개하고 검증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덮어주기나 축소조장 등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찰·종단의 재정 투명화 조건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일 년간의 살림살이 규모와 내역을 공개했다. 종교계가 회계감사자료를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종교계는 성역이라는 인식으로 재정의 사용처 등을 밝히는데 긍정적이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종교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어 온 터에 이번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많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종교단체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신도들에 대한 의무의 일환쯤으로 보는 측도 있고 이 일을 과세의 가능성으로 묶어 가려는 측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에 앞서 불교계 현실은 어떤가? 사찰재정의 투명화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렇지만 재정 투명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현재의 회계 시스템 점검을 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종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형식에 가까운 종단 자체 회계감사로 투명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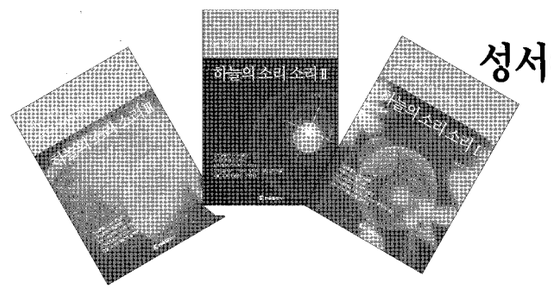
시스템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이므로 언제든지 보완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 투명화와 관련, 불교계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다. 스님과 신도들의 의지가 앞서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 종단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 되고 철저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찰과 종단의 재정 투명화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불교계 자체의 도덕성과 청정성을 회복하는 자기구제의 사명임을 명심하자.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하늘의 소리 소리 Ⅰ·Ⅱ·Ⅲ권
화계의 신간

성서(聖書)의 Word(말씀)
〈수능엄경〉의 관음법문
김성갑 지음 / 신국판
Ⅰ권 336쪽, Ⅱ권 344쪽, Ⅲ권 344쪽 / 각권 10,000원
요가 대수행자의 마지막 수행처 선가(仙家)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상단전의 비밀'
오늘, 그 비기(秘記)를 공개한다.
'무소의 뿔처럼' '백척간무에 진일보' 보다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업장소멸
불성이 곧 본성(本性)이며, 위대한 실체다
즉각 깨닫는 길
전국 서점 판매중
'간화선의 화두' '남방의 위빠사나' 도 아니다.
오직, 묘촉을 만나야 하며 관음을 득해야 한다.
묘촉(妙觸)은 업장의 현주소이며 맑음의 바로메타.
관음(觀音)은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으로
천상의 음악이다.

"좋은 분들께 선물, 감동을 주는 책"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0,000원
신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 스님/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신국판/양장본/김백만 편저/50,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글로벌작명학의 디자인 — 신국판/양장본/박수병 지음/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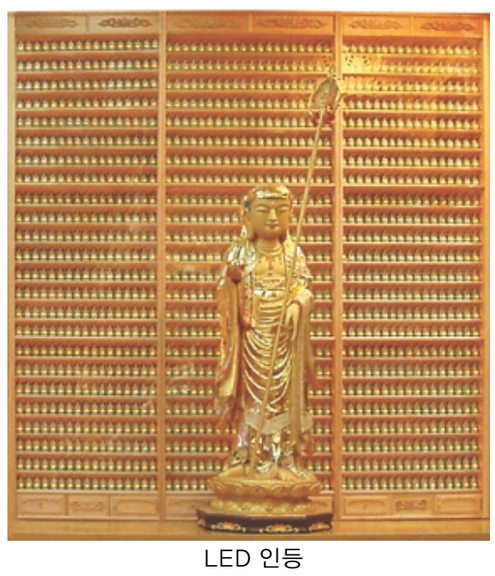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업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찰명 인쇄시 30일 전에 미리 전화신청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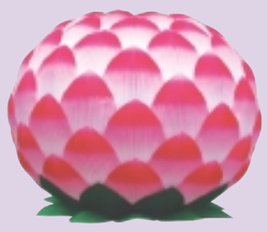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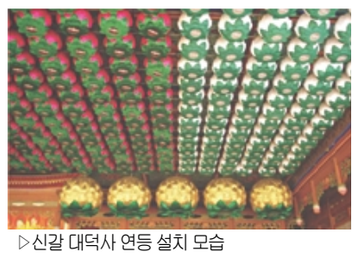


주름등(만월봉축등)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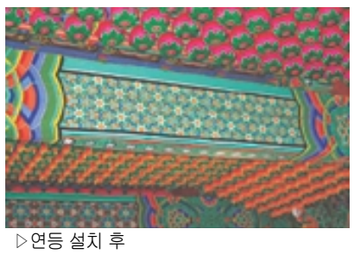

▷연등 자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3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